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 학위논문

허만 멜빌의 작중 인물에 나타난 ‘고독’ :  
핍, 바틀비,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On 'Solitude' of the Characters in Herman Melville's Works:  
Focusing on Pip, Bartleby, and Ishmael

지도교수 홍 옥 숙

2019년 8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김 낙 현

본 논문을 김낙현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위원장 : 노 종 진 (인)

위 원 : 박 준 형 (인)

위 원 : 심 진 호 (인)

위 원 : 정 남 모 (인)

위 원 : 홍 옥 숙 (인)

2019년 7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목 차

Abstract .....	iii
1. 서론.....	1
2. 개인의 탄생과 미국문학 속의 고독.....	8
3. 『모비 딕』에 나타난 핏의 숙명적 고독 .....	23
3.1 에이헵과 피쿼드 호의 고독한 인물들 .....	25
3.2 핏의 실성과 고독 .....	31
3.3 핏의 숙명적 고독 .....	39
4. 「필경사 바틀비」에 나타난 바틀비의 사회적 소외와 고독 .....	43
4.1 생명이 없는 고독한 풍경 .....	44
4.2 소통의 단절과 바틀비의 외로움 .....	48
4.3 사회적 부재와 소외 .....	56
5. 『모비 딕』에 나타난 이스마엘의 불멸의 고독 .....	61
5.1 이스마엘의 명상적 고독 .....	63
5.2 고랫배 선원 이스마엘의 운명적 고독 .....	67
5.3 불멸의 고독 .....	78

6. 결론 ..... 82

Works Cited ..... 86

On 'Solitude' of the Characters in Herman Melville's  
Works: Focusing on Pip, Bartleby, and Ishmael

Kim, Nack Hyeon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types of solitude of Pip and Ishmael in Herman Melville's *Moby-Dick* as well as Bartleby in "Bartleby, The Scrivener: A Story of Wall Street." Solitude, or the state of being solitary or separated from the community, has been regarded as the prerequisite for religious meditation since the ancient times. However, starting at least from the mid-seventeenth century, the connection between solitude and religious practice was gradually attacked with the rise of individualism and its emphasis on the learning and self-knowledge. Social changes caused by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capitalism in Europe accelerated the isolation of individuals from the community.

Although it was established by immigrants from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United States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developed a new state different from European countries in terms of system, custom and tradition. Solitude also took a different form in the US, because pioneers of the newly founded country voluntarily chose a different way

of life confronting solitude at the frontier. As democracy and capitalism took root in the American society, the individualism founded on the claims of individual rights prevailed over the pursuit of the public good. Melville is a representative writer of the American Renaissance, along with Emerson, Hawthorne, Poe, Thoreau, and Walt Whitman.

I define solitude as containing two different dimensions: one is the state of being 'lonely' as the result of social isolation, while the other is the state of being 'alone' as the essential human condition. Melville's characters to be discussed in the dissertation are first of all 'lonely' figures, who suffer from socially disadvantaged situation. However, their reactions to the absolute human condition of 'aleness' are different.

First, Melville shows the most condensed encounter with solitude through the solitude of Pip in *Moby-Dick* published in 1851. Pip as a black boy, situated at the bottom of the social hierarchy of the Pequod structured by the physical power and race. While chasing a whale on a boat, Pip falls into the water and experiences another world. When he is desperately waiting for the rescue from his colleagues, he is left drifting helpless. His soul achieves infinite wisdom like God's. Pip's solitude is initially caused by the social isolation from his colleagues and then worsened by his insanity, which hinders him from communicating with the others.

Second, Bartleby in "Bartleby, The Scrivener: A Story of Wall Street" published in 1853, is a lonely figure who experiences a rapidly changing capitalistic society. Later, in an attempt to defend himself, he chooses solitude and death against the inequalities created by capitalism and discrimination in the community. His resistant solitude somehow seems to

influence the lawyer-narrator, who delivers the story of Bartleby, however, we cannot expect any substantial change in the lawyer's attitude.

Finally, Ishmael of *Moby-Dick* rides on the whaleship because he is socially and economically estranged from the community life on land. As he pursues the white whale, Moby-Dick in the ocean, he learns of the importance of comradeship with Queequeg and other fellow sailors and overcomes his loneliness. Moreover, becoming the only survivor of the Pequod, Ishmael is given a chance to start life anew on land. This time, he is able to confront his solitude—this time both 'loneliness' and 'aleness'—with more elevated consciousness and wisdom he achieved during the voyage.

In conclusion, I find the issues of solitude in the three characters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literature and thoughts of the mid-nineteenth century America, for instance Emerson or Thoreau's *Walden*(1854). However, Melville, who was experiencing financial troubles during the economic depression, was well aware of the difficultie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like Pip, Ishmael, and Bartleby, and described their desperate social isolation. The theme of solitude is not limited to the period Melville lived but extended further into the 21<sup>st</sup> century, so I hope this dissertation can be of help to look into the solitude and isolation which people in the contemporary society experience.

**Key Words:** Solitude 고독; Nonperson 사회적 약자; Whaleship 고래배; Pip 피프; Bartleby 바틀비; Ishmael 이스마엘; Herman Melville 허만 멜빌; Thoreau 소로우; *Moby-Dick* 『모비 딕』; “Bartleby, The Scrivener: A Story of Wall Street” 「필경사 바틀비」; *Walden* 『월든』; Emerson 에머슨; Thoreau 소로우.

# 1. 서론

허만 멜빌(Herman Melville, 1819-1891)의 『모비 딕』(*Moby-Dick; or, The White Whale*, 1851)<sup>1)</sup>과 「필경사 바틀비: 월가의 이야기」(“Bartleby, The Scrivener: A Story of Wall Street,” 1853)<sup>2)</sup>에 등장하는 상당수의 인물들이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자신을 고독함이라는 단어로 정의한다. 멜빌의 인물들은 독자에게 고독에 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공동체 속에서 고독하지 않은 개인이 있을까? 고독한 개인은 과연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애써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들은 다수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의 고독을 은폐하고 소수를 집단으로부터 쳐내는 것은 아닐까?

이 논문의 목적은 멜빌의 작품에 나타난 고독을 연구하는 것이다. 작품 속의 인물들이 경험하는 고독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고독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살펴본다. 또한 멜빌의 작품에서 왜 고독한 인물이 많으며, 멜빌에게 고독은 왜 중요한가를 고찰할 것이다.

우선 멜빌의 작품에 나타난 고독한 인물들에 대한 비평가들의 평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멜빌의 작품 중에서 10편 이상의 소설과 시에 등장하는 고독한 인물들을 분석한 와터즈(R. E. Watters)는 1945년의 논문에서 멜빌의 인물들을 “자발적 외톨이”(voluntary Isolato)와 “비자발적 외톨이”(involuntary Isolato)로 구분한다(1139-40).<sup>3)</sup> “멜빌의 최대의 자발적 외톨이 두 사람”(Melville’s two greatest voluntary Isolatoes)(1140)으로 꼽은 『모비 딕』의 “에이헵”(Ahab) 선장과 『피에르』(*Pierre, or the Ambiguities*, 1852)의 “피에르”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 선택한 독선적인 고독으로 인해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는 인물들이며,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1) 다음부터 줄여서 『모비 딕』(*Moby-Dick*)으로 표기한다. 인용은 *Moby-Dick*(New York: Penguin, 2012)에서 하고, 괄호에 페이지만 표시하고, 김석희의 번역을 참고함.

2) 다음부터 줄여서 「필경사 바틀비」(“Bartleby”)로 표기한다. 인용은 “Bartleby”(New York: Penguin, 1986)에서 하고, 김훈의 번역을 참고함.

3) ‘isolato’는 이탈리아어로 ‘고립된’(isolated) 또는 ‘고립된 사람’(isolated person)을 뜻하는 단어로 멜빌이 『모비 딕』에서 ‘외톨이’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고 있다.

“바틀비” (Bartleby)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고 와터즈는 주장한다(1144). 이에 비해 비자발적인 외톨이는, “외로운 사람들” (lonely men)로서 동료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다(Watters 1144). 와터즈는 『모비 딕』의 화자 “이스마엘” (Ishmael)을 비자발적인 외톨이로서 “퀴퀘그” (Queequeg)를 통해 심적 위안을 얻는 인물로 보는데(1144), 이스마엘은 퀴퀘그에 대해서 “낯선 땅에 온 방랑자” (a wander in an alien land)(1139)이며 “나와 똑같은 사람” (the man’s a human being just as I)(29)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와터즈는 본 논문에서 다룰 『모비 딕』의 “핍” (Pip)에 관해서는 보트에서 바다에 빠진 이후 구조되기까지 몇 시간 동안을 바다에 “버려졌다” (deserted)(1146)라고 함으로써 핍 역시 비자발적인 외톨이로 분류하는 듯하다. 와터즈는 외톨이들에 대한 멜빌의 동정심이 그의 전기적 요소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1146).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소외되어 외톨이가 되어 배를 탈 수밖에 없었던 멜빌의 삶이 외톨이들에 대한 묘사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Watters 1146).

본 논문에서 선정한 세 인물은 와터즈의 견해에 따라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외톨이로 더 세분할 수 있다. 고독(孤獨)이라는 한자어 자체만 보더라도 다양한 혼자 있음의 상태를 나타내지만, 그 구분이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와터즈의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독의 의미를 ‘외로움’ (loneliness, 孤)과 ‘홀로임’ (aloneness, 獨)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외로움’은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세 인물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사회 속에서의 상대적인 고독을 의미한다. 동료 선원들로부터 버림받은 핍이나 배달 불가 우편물 취급소에서 절망을 느꼈을 바틀비, 물에서의 삶에서 밀려난 이스마엘 모두가 사회적 약자이며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와터즈가 주장하듯이 이들은 ‘외로움’의 해소를 위해 타인을 필요로 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외로운 상태’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홀로인 상태’를 대면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로움’이 상대적 개념으로 타인과의 소통 단절을 의미한다면, ‘홀로인 상태’는 인간 삶의 전제라 할, 좀 더 절대적인 의미의 고독이다. 바다에 빠

저 ‘aloneness’ 를 절감한 핍은 그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실성해 버리며, 바틀비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타인과 소통의 가능성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홀로인 상태’에서 죽음을 택한다. 이스마엘은 핍과 같은 운명에 처하지만, 구조되어 또다시 혼자가 된다. ‘고아’로 구조되었다고는 하지만, 이스마엘이 배를 타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외로운 처지에 놓일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살아남음으로써 이스마엘은 핍이나 바틀비와는 달리 ‘홀로인 상태’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매시(Virginia Massie)는 『홀로 있는 축복: 호손, 멜빌, 그리고 케이트 쇼팽의 소설에 나타난 고독』(*Solitary Blessing: Solitude in the Fiction of Hawthorne, Melville, and Kate Chopin*, 2005)에서 호손과 멜빌 등의 작가들은 고독이 인물들을 “깨우침”(enlightenment), “지식”(knowledge), “자아에 대한 인식”(a sense of self)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고독을 찾는 사람의 공동체로의 귀환”(return to the community of the seeker of solitude)으로 이끈다고 주장한다(168). 그중에서 매시는 멜빌의 작중 인물 세 사람 즉 핍, 바틀비, 이스마엘의 고독이 “축복”(Blessing)이라고 주장하는데, 주로 이들이 주변의 인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이들을 변화시키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핍은 자신의 예정된 운명을 알아차리고 수긍하며”(Pip sees his destiny and acknowledges it)(119), “그가 무관심으로 떨어진 것이 에이헵과 이스마엘, 심지어는 스타벅까지도 변화시킨다”(Pip’s descent into indifference does, indeed, alter Ahab, Ishmael, and even Starbuck)(125)라고 할 정도로 핍의 고독을 긍정적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실성의 대가로 핍이 얻게 된 “‘지혜’라는 이름의 인색한 인어왕자”(the miser-merman, Wisdom)가 드러낸 “산더미처럼 쌓인 자신의 보물”(his hoarded heaps)(483)은 소수의 인물들만이 어렵פות이 감지할 뿐이며 “피쿼드”(Pequod) 호의 예정된 운명을 바꿀 수도 없다. 또한 바틀비가 주변과의 소통을 거부하지만, 변호사-화자가 점차 그를 이해하게 되며, 화자의 가치 체계가 “월가”(Wall Street)의 방식으로부터 영구히 바뀌게 됨을 소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매시의 주장이다(120). 그러나 필자는 바틀비에 대한 화자의 동정심은 일시적인 것일 뿐, 매시의 주장처럼 화자의 자본주의적 가치관

이 바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화자는 바틀비를 구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기 때문이다. 핼의 실성이나 바틀비의 소외와 죽음이 주변의 인물이 아니라 본인에게 축복이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필자로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와터즈가 주장하는 공동체에서의 “경험의 공유”(in shared experiences)(1148)를 통해 얻는 행복이 핼이나 바틀비에게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스마엘의 경우 퀴퀘그를 친구로 얻고 “고래배”(whaleship)<sup>4)</sup>에서 동료들과의 공동체 생활을 잠시 누리지만, 소설의 말미에서 홀로 구조된 자신을 “고아”(an orphan)(663)로 표현하는 그도 마찬가지로 고독의 상태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핼이나 바틀비와는 달리 이성을 잃지도 않았으며 소통을 거부하지도 않는 이스마엘이야말로 ‘외로움’과 ‘홀로임’의 두 상태를 제대로 겪음으로써 이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탄생과 미국문학 속의 고독을 2장에서 개관한 다음 『모비 딕』의 핼과 「필경사 바틀비」의 바틀비, 그리고 『모비 딕』의 이스마엘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계급적 질서로 특징지어지는 피쿼드 호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급사인 핼의 고독을 다룬다. 처음 고래를 쫓아가던 보트에서 바다에 빠졌을 때, 핼은 흑인 소년인 자신의 몸값이 고래 한 마리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는다. 두 번째로 바다에 빠진 핼은 한참을 바다에서 홀로 떠돌다 뒤늦게 구조되지만, 실성해 버린다. 바다에서 홀로 남겨진 시간 동안 핼이 맞닥뜨린 고독—여기서는 홀로인 상태—이 엄청난 신의 지혜를 그에게 선물했다는 이스마엘의 표현은 역설적이지만 핼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독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을 실감나게 설명한다. 핼은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와 점점 멀어져 가고, 핼을 태운 피쿼드 호는 핼의 상황에서 예시된 ‘예정된 운명’을 향하여 항해한다.

『모비 딕』을 출판한 지 2년 후인 1853년부터 신문에 연재하기 시작한 「필

4) 논문의 필자는 고래잡이의 본고장 장생포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필자의 기억과 주변 어른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래를 잡는 배를 ‘고래배’로 불렀다. ‘포경’, ‘포경선’, 그리고 ‘포경산업’이라는 말은 이후에 생겨난 말이다. 본 논문에서는 생동감을 살리기 위하여 ‘고래배’를 사용한다.

경사 바틀비」는 미국의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월가의 한복판에서 철저히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한 필경사의 삶을 통해 자본주의가 낳은 계급 분열과 인간적 불평등, 그리고 인간 상호간의 물리적·정신적 벽의 문제를 묘사하면서 민주주의 평등의 이상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논문의 제4장에서는 자본주의가 팽배한 사회로부터 소외를 겪는 바틀비의 고독을 다룬다. 소통의 단절을 경험한 상황에서 바틀비가 침묵으로 저항하는 동안, 변호사-화자는 바틀비를 더욱더 고립무원의 상태로 몰아간다. 고독을 선택한 ‘자발적 외톨이’로 보이지만, 바틀비는 이미 그 전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쟁사회에서 내몰린 결과 이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 고독을 선택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바틀비는 ‘외로움’의 상태를 경험한 후에 ‘혼자임’을 택하고 그 결과는 누구와도 소통을 거부하는 상태에서의 죽음이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모비 디』의 이스마엘의 고독을 살펴본다. 미국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모비 디』의 화자 이스마엘의 고독—외로움—은 사회에 대한 절망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고깃배의 선원으로서 대양을 항행하는 여정은 이스마엘에게는 퀴퀘그를 비롯한 동료 선원과의 어울림과 죽음과 고래에 대한 명상의 과정으로 기능한다. 무엇보다도 같은 배를 탄 핍이 실성하는 반면, 이스마엘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중요할 것이다. 사실 이스마엘의 생존이 독자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마엘이 피쿼드 호의 동료 선원들을 잃고 바다를 떠돌다가 “레이철”(Rachel) 호로부터 내밀어진 구원의 손길을 잡은 것이라 할 것이다. 핍에서 바틀비로, 그리고 이스마엘로 이어지는 논문의 구성은 멜빌이 소설을 쓴 연대와는 맞지 않지만, 앞서의 두 인물과 다른 이스마엘의 생존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핍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성해버리고, 바틀비가 자신이 처한 외로움의 상태에서 타인과의 어울림 대신 고립을 택하고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반면, 필자는 이스마엘의 생존 혹은 구조가 중요하다고 본다. 고독한 상태지만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스마엘이 보여준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한 19세기 “아메리칸 르네상스”(American Renaissance)로 일컬어지는 미국문학의 황금기에 등장한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1803-1882), 호손

(Nathaniel Hawthorne, 1804-1864), 소로우(Henry David Thoreau, 1817-1862)<sup>5)</sup> 등 여러 작가들이 개인과 고독이라는 주제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멜빌의 작품을 19세기 미국문학과와의 연관 속에서 개인과 고독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이다. 하지만 19세기 미국문학이라는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 과거의 사회를 돌이켜보는데 만족하지 않는다. 고독사, 독거노인, 노숙자, 자연인, 나홀로 여행, 혼밥족, 혼술족, 와이즈(WISE)족<sup>6)</sup> 등과 같이 고독과 관련된 단어와 현상이 폭발적으로 생겨나는 오늘날의 사회를 들여다보고 해답을 찾아내는데 이 논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고독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는 멜빌의 인물들이 현대의 소외된 개인을 이해하고, 사회적 병리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세 인물의 공통점은 사회에서 버림받아 소외되고 고립되어 외로운 사람들이다.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힘이 없어 존재가 무시되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사회적 약자’ (nonperson)라고 볼 때, 이들은 예외일 수 없다. 자신의 본명을 모르며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흑인 소년 핼, 경제논리만 앞세우는 배금주의 풍조 아래 점점 사라지는 인간성을 목격하며 동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바틀비, 실직한 후 무일푼으로 위험한 배를 타야만 하는 이스마엘은 모두 공동체에서 바깥으로 내몰린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오늘날의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다. 핼은 실성하고, 바틀비는 자살한다. 반면에 이스마엘은 육지에서 직장을 잃고 방황하면서 자살 충동까지 느꼈으나 “예일 대학이자 하버드 대학”(Yale College and my Harvard)(131)인 고랫배를 타고 항해한 끝에 자신의 외로움을 넘어서고 절대적 고독이라는 인간의 숙명을 깨닫는다. 사회적 약자로서의 소외나 외로움을 이미 맛보았지만, 이스마엘이 고랫배를 타고 죽음 직전의 순간까지 갔을 때 깨달은 것은 인간의 본질적 고독, 즉 혼자라는 운명이고, 이를 긍정했을 때 그의 공동

5) 1817년 7월 12일 매사추세츠주 콩코드(Concord, Massachusetts)에서 태어난 그의 첫 번째 이름은 ‘David Henry Thoreau’ 였고, 이후에 ‘Henry David Thoreau’ 로 바꾸었다(Bloom 135).

6) 와이즈(WISE)족은 “나홀로 경험을 고집하는 여자들”(Women who Insist on Single Experiences)의 약자로, 홀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떠나는 여자를 말한다.

체로의 복귀는 의미를 지닌다.

소외되고, 존재가 무시 되고, 외로운 생활이 많은 것은 오늘날의 사회적 현상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실의에 찬 젊은이, 실직자, 구직자, 노인, 약자, 병약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점을 감안할 때, ‘고독의 긍정적인 면’에는 본 논문의 취지인 희망을 던지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 2. 개인의 탄생과 미국문학 속의 고독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인간의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류의 초기 공동체는 더 큰 단위의 지역 공동체나 국가의 성립을 위해 서로 결속하였다.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이 그 일원인 개인의 삶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녔던 시기를 두고 개인의 삶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개인과 고독에 대한 질문은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동체 생활을 떠난 고독의 중요성은 종교의 영역에서 강조되어 왔다. 수도자와 은둔자들은 공동체를 벗어난 고립 생활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고독을 추구했다기보다는 그들 나름대로 선택한 수행적인 삶의 방식이었다. 고대 인도의 서사시 가운데 하나인 『마하바라타』(Mahabharata)의 「바가바드 기타」(“Bhagavad Gita”)<sup>7)</sup> 제18장 52절에서 크리슈나 신은 궁극의 지혜에 도달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sup>8)</sup>

대신에, 그[수행자]는 고독감 속에서 살아가면서, 먹는 것을 절제하고 생각, 말, 행위를 통제한다. 그[수행자]는 끊임없이 명상 요가를 수행하고 무집착의 피난처로 대피한다.

Instead, he lives in (a sense of) solitude, eats sparingly and controls his thoughts, words, and actions. He continually engages in yogic meditation

---

7) 고대 산스크리트(Sanskrit)어로 기록된 「바가바드 기타」는 힌두교 경전으로 크리슈나의 모습으로 변한 신과 인간의 모습을 한 아르쥬나와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다.

8) 『마하바라타』와 「바가바드 기타」의 영어 철자는 현대식으로 고쳤으며, 영문판 『리빙 기타: 완벽한 바가바드 기타』(*The Living Gita: The Complete Bhagavad Gita*, 2010)를 참고함. 괄호 속의 이탤릭체는 산스크리트어임.

(*Dhyana Yoga*) and takes refuge in non-attachment (*vairagya*). (*The Living Gita: The Complete Bhagavad Gita* 288)

인류의 오래된 기록 가운데 하나인 「바가바드 기타」에서 고독은 지혜에 이르기 위한 명상과 수행의 전제조건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40일간 광야에서 단식하며 기도했다는 성경의 기록 역시 예수가 고독한 가운데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9)</sup> 그러므로 공동체를 벗어난 고독의 추구는 주로 종교적 목적의 수행에 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교와 관련된 고독이 아닌 세속의 개인과 고독의 문제는 역사인류학자이며 근대문화사의 권위자인 리하르트 반 뢰덴(Richard van Dülmen, 1937-2004)에 의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19세기 스위스의 역사가 야코프 부르크하르트(Jacob Burckhardt, 1818-1897)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를 발간한 이래로 개인의 발견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산물이라고 여겨졌던 것과는 달리, 뢰덴은 개인이라는 개념이 이미 중세 시대에 나왔으며, 계몽주의가 “새로운 자아로서의 근대적 개인”(20)의 “발견과 발전에 가장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했다고 한다(250). 뢰덴은 중세에 시작되어 르네상스 시대에 강화된 종교적 개인주의가 종교개혁으로 결실을 맺었고(27), 또한 개인에 대한 본격적인 성찰의 문화가 시작되면서 16세기는 자서전과 자화상의 시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40-68). 개인(individual)이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개체로서 기존의 권력이나 계급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대 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계몽적 사고, 시민적 사고에 입각한 개인은 “시민사회 형성에 참여하고 보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촉구 받았다”(뢰덴 250). 18세기 이후 인간에 대해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아주 높아졌다. 아울러 근대초기의 개인주의는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얽혀서 생겨났고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경험과 조건을 담아내었다. 개인적 관심사를 발전시키고 개인의 독자성을 요구하는 개인으로서 인간을 보는 관점은 바로 이러한 복잡한 틀 안에서 관철될 수

9) 「마테오서」 4: 1-11; 「마르코서」 1: 12-1; 「루가서」 4: 1-13.

있었다.

영국에서 시작된 방적 기계의 개량이 발단이 되어 유럽 각국으로 확산되어 일어난 산업 혁명 기간 동안 “solitude” (고독), “solitary” (혼자인) 뿐만 아니라 “individual” (개인)이라는 낱말의 사용빈도가 급격히 증가했다.<sup>10)</sup> 수공업 작업장이 기계 설비 증설로 이어져 자본주의 경제가 시작되면서 각 개인의 생활 패턴이 변화된 것이 그 이유의 하나였다.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유럽에서 일어난 생산 기술과 그에 따른 사회 조직의 큰 변화는 그동안 공동체적 성격을 띤 정신문화의 쇠퇴와 물질문명의 급성장을 가져왔다. 이는 인간의 공동체적 유대감이 갈수록 없어지고 개인생활이 증가함을 뜻한다. 산업 혁명 이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노동자와 노동의 문제점을 지적한 초기의 저작, 『1844년 경제학-철학 수고』 (*Economic-Philosophic Manuscripts of 1844*)에서 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는 “노동 생산물, 생활 활동, 유적-인간(類的人間)으로부터 인간이 소외된다는 사실의 즉각적인 결과는 **인간의 인간으로부터의 소외**” (An immediate consequence of the fact that man is estranged from the product of his labour, from his life activity, from his species-being is the *estrangement of man from man*)라고 하였다(277).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소외와 고독의 문제가 심화됨을 주장한 마르크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근대적 의미의 개인은 그가 속한 공동체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개인의 자아는 사회를 매개로 형성되기에 공동체와의 곁항 관계에서 소외 혹은 고독을 경험하는 개인이 나오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고독” (solitude)에 관한 사전적 의미를 『옥스퍼드 영어사전』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는, “혼자이거나 혼자 살고 있는 상태” (The state or situation of being alone, loneliness, seclusion, solitariness (of persons))로서 ‘loneliness’ 나 ‘seclusion’ 또는 ‘solitariness’ 의 뜻을 지니고 있다(OED vol. X 404). ‘seclusion’ 이나 ‘solitariness’ 가 혼자인 상태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도 담고 있지 않은 중립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loneliness’ 는 혼자이

---

10) “고독” (solitude), “혼자인” (solitary), 그리고 “개인” (individual)에 대한 시기별 사용빈도 추이는 [books.google.com/ngram viewer](https://books.google.com/ngram/viewer)를 이용한 그래프로 비교, 검색할 수 있다.

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 그 중에서도 주로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자로 표기한 ‘孤獨’ 역시 ‘loneliness’의 외로움과 ‘solitariness’의 홀로인 상태 둘 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독’ 혹은 ‘solitude’라는 단어는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사전에서도 ‘고독’이란 단어의 두 가지 다른 상태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이를 두루 혼용하여 쓰되,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할 경우는 ‘외로움’과 ‘홀로임’을 부연할 것이다. 또한 “고독”이란 단어는 17세기까지는 흔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던 단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404) 산업 혁명이 태동하던 18세기 후반부터 이 단어가 서적에서 사용된 빈도가 급증한 점은 앞의 ‘각주 10)’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다. 근대적 의미의 개인이 형성되자 고독은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된 것이다. 즉, 근대에 접어들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만 의미를 갖고 있던 인간이 독자적인 개체로서의 개인으로 거듭나게 되자 ‘고독’이 개인의 중요한 특성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공동체와 떨어져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사유하는, ‘혼자’로서의 개인의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이런 홀로인 상태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태도가 생겨났을 것이다. 공동체와의 유대관계를 상실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인은 ‘외로운’ 존재로 그려진다.

프랑스 혁명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유럽과 영국의 낭만주의 문학은 개인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로 특징지어지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의 영국에서는 도시로 몰려든 빈민 노동자 계층의 선거권 쟁취를 위한 투쟁과 노예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 등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개인의 자유와 사교를 구속하는 사회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연에서 영감과 도덕성의 원천을 찾으려 했던 낭만주의는 미국문학에도 큰 영향을 발휘하였다. 영국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얻었지만 청교도들이 처음 정착했던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한 당시의 미국문학은 여전히 영국을 모방하고 있었고, 영국과 유럽은 여전히 미국의 학문과 예술가들의 지식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영국 문화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작가들은 자신들 삶의 터전인 미국에서 독특한 것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자유, 독립, 광활한 자연에의 감격, 그리고 희망과 꿈이 담겨 있었다. 예를 들어 드넓은 황야를 개척하려는 프론티어 정신을 가진

개척자들이 고독을 벗 삼아 원주민들과의 대립과 풍토병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생사를 건 모험과 탐험을 마다하지 않았고, 이런 삶에서 나온 모험과 고독의 경험은 이후 미국 작가들이 즐겨 다룬 주제가 된다.

19세기 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로 평가되는 쿠퍼(James Fenimore Cooper, 1789-1851)의 경우, 프론티어에서의 삶을 주제로 등장시켰지만 월터 스콧(Walter Scott, 1771-1832)의 문체를 따르고 있었다(Atkinson xi)라고 할 정도로 독자적인 미국문학의 탄생은 19세기 중반에야 가능했다. 독립전쟁의 여파로 중지되었던 영국과의 무역이 재개되면서 영국 문단에서 화제를 모은 낭만주의 시인들의 작품과 소설이 미국에서도 출판되며 인기를 끌었다(Parker 425). 모스(David Morse)는 자신의 저서 『미국의 낭만주의』(*American Romanticism: Vol. 1. From Cooper to Hawthorne—Excessive America*, 1987)에서 19세기 미국문학을 낭만주의의 관점에서 개관하면서, 그 특징을 책명의 부제로 붙여 “과도한 미국”(excessive America)으로 정의하였다. 어빙(Washington Irving, 1783-1859)과 쿠퍼로 시작하여 에머슨의 초월주의(Transcendentalism)를 거쳐 소로우와 호손에 이르는 남북전쟁 이전 시기의 미국문학은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미국문학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드러냈다고 보았다. 영국 비평가의 입장에서 볼 때, 모스는 프론티어의 확장이라는 외적인 측면 외에도 미국 작가에서 드러나는 유럽과 영국을 넘어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내면의 욕구가 “불안, 근심과 부담감”(anxiety, apprehension, and strain)(2)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남북전쟁 직전 1850년대 전반에는 매티슨(F. O. Matthiessen, 1902-1950)이 ‘아메리칸 르네상스’라고 명명할 정도로 유럽의 아류가 아닌 독특한 미국적인 주제를 표현한 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출판되었다. 매티슨은 자신의 책 『아메리칸 르네상스』(*American Renaissance: Art and Expression in the Age of Emerson and Whitman*, 1941)에 “에머슨과 휘트먼 시대의 예술과 표현”이라는 부제를 붙였지만, 첫머리에 방법론과 범위(Method and Scope)를 설명하면서 에머슨의 『위대한 인물들』(*Representative Men*, 1850), 호손의 『주홍 글씨』(*The Scarlet Letter*, 1850)와 『일곱 박공의 집』(*The House of the*

*Seven Gables*, 1851), 멜빌의 『모비 딕』과 『피에르』, 소로우의 『월든』 (*Walden, or Life in the Woods*, 1854),<sup>11)</sup> 휘트먼의 시집 『풀잎』 (*Leaves of Grass*, 1855) 등 19세기 미국문학의 대표작이 쏟아진 시기라고 썼다. 이 중의 많은 작품이 1840년대의 초절주의에 관련되었거나 영향을 받았던 사실이 중요한데, 초절주의를 통하여 미국은 지금까지 영국과 유럽의 문화와 관습에의 의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Hardack 162)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첫 번째 지식 운동이라 할 초절주의는 칸트의 초절주의에 영향을 받았으며, 에머슨은 자신의 에세이 「초절주의자」 (“The Transcendentalist”) 에서 “칸트가 사용한 용어에서 초절주의 이름을” (the name of Transcendental from the use of that term by Immanuel Kant)(93) 따왔다고 밝혔다. 초절주의는 19세기 중엽 미국에서 일어난 관념론적 입장의 철학 운동으로 동양 사상의 영향을 받아 범신론, 직관주의, 신비주의 등의 철학을 주장하였다. “미국 정신과 관련된 최초의 철학자” (the first philosopher of the American spirit)(Atkinson xi)인 에머슨은 1820-1825년에 인도 철학과 신화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으며, 「바가바드 기타」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에머슨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소로우의 졸업식 날이기도 한 1837년 8월 21일 “파이 베타 카파 소사이어티” (Phi Beta Kappa Society) 앞에서 한 강연 「미국의 학자」 (“The American Scholar,” 1838)를 통해 “우리는 이제 의존의 시대, 타국의 학문에 대한 오랫동안의 도제 제도 시대는 끝났다” (Our day of dependence, our long apprenticeship to the learning of other lands, draws to a close)(45)라고 말한 것은 미국 학자의 책무로서 미국 지성의 독립과 창조성을 주창한 것이다. 개인의 능력, 독립, 자존의 정신은 당시 미국인에게 꼭 필요한 정신 자세였다(45). 에머슨의 사상은 미국인에게 자신의 순수한 자아 이외의 어떤 근거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립을 요구함으로써 유럽과의 낡은 관계를 끊으려는 의도를 구현하고 있다. 이 점이야 말로 에머슨의 초절주의 사상이자 미국적 사상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에머슨이 『에세이: 제1 시리

---

11) 다음부터 ‘『월든』 (*Walden, or Life in the Woods*)’ 을 ‘『월든』 (*Walden*)’ 으로 줄여서 표기한다.

즈』(*Essays: First Series*, 1841)에 수록한 「자기 신뢰」(“Self-Reliance”)와 「대영혼」(“The Over-Soul”) 등에서는 「바가바드 기타」가 “그[에머슨]에게 지혜와 영감의 위대한 원천”(a great source of knowledge and inspiration for him)(Anwaruddin 4)이었음을 드러낸다. 개인주의에 관한 에머슨의 생각에는, “자기 신뢰”(self-reliance)라는 사고가 지배적인데, 이는 모든 측면에서 “특정 그룹의 정치적 활동에 기대지 말고 자기 자신의 본성”(one’s own nature not on the political workings of a particular group)(Weir Jr. 63)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머슨의 제자 소로우는 에머슨 자녀의 가정교사로 기숙하던 중 에머슨이 매입한 월든 연못가에서 1854년 혼자서 집을 짓기 시작했다(Maynard 304). 이리하여 소로우는 근대문명과는 다른 독자적인 삶을 실험하기 시작한다. “19세기 미국 작가의 고전”(the canonical nineteenth-century American author)(Titon 144)으로 불리는 『월든』의 저자 소로우는 스스로 선택한 실험적 삶을 통하여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소로우 역시 에머슨처럼 「바가바드 기타」를 읽고 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당시의 시대정신과 문해정신의 시대는 끝났다는 견해를 『월든』에 피력하는데, 그는 더 이상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그 한계를 넘어 「바가바드 기타」의 우주관과 종교관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소로우는 자연과 우주 너머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나와는 무관하다고 한다. 결국 알게 되는 것은 고독이고, 그 고독은 우주의 저편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인 나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신성한 영혼을 찾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조언한다. 즉, “개인주의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수단”(Individualism is a means to universality, not an end in itself)(Deneen 10)으로, 결국 한층 더 높고 더 넓은 사고의 형태는 에머슨과 소로우의 미국적 철학에서 이미 발견된 것이다. 결국 초절주의 운동은 미국에서 “문화적 힘”(cultural force)(Weir Jr. 49)이 되었고, 독일 철학에서도 그 힘을 발휘하였다. 니체(Friedrich W. Nietzsche, 1844-1900)는 오베르벡(Franz Overbeck, 1837-1905)<sup>12)</sup>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과 에머슨은 “영적 형제”(a

soul-brother)(Krell 9-10)의 관계라고 쓸 정도로, 그는 에머슨과 소로우의 영향을 받았고(Saito 1069), 나아가서 “니체의 위버멘쉬(超人)에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에머슨의 대영혼이라는 유산을 중첩시키도록 상기시킨다”(reminds us of the overlapping of the inheritance of Emerson’s Over-Soul in Nietzsche’s Übermensch)(Saito 1073)라고 할 정도이다.

『노튼 미국문학 선집』(*The Norton Anthology of American Literature*, 2003)의 편집자의 한 사람으로 1820년부터 1865년 사이의 미국문학을 개관한 파커(Hershel Parker)는 이 당시 미국문학계는 아주 작은 규모로, 작가들이 서로를 알고 있었으며 때로는 매우 친하게 지냈다고 하며 구체적인 친분의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430-31). 에머슨, 호손, 소로우, 그리고 멜빌 모두가 동시대의 작가들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거나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 결과로 에머슨의 초절주의는 아메리칸 르네상스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멜빌도 초절주의의 영향을 어느 정도 공유하였다. 하지만 에머슨이 주장하는 ‘자기-의존적인’(self-reliant) 인물은 멜빌에게서는 에이협외의 모습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와터즈가 말하는 멜빌의 자발적 외톨이인 에이협외가 에머슨의 초절주의가 찬미하는 인물에 가까워 보이지만, 본 논문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인물들은 처음부터 자기 의존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소외와 외로움을 느끼는 씬이나 바틀비가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하는가를 다루며, 이스마엘도 유사한 상황에서 시작하여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고독함을 깨닫는 존재로 변모하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다.

한편, 초절주의가 신생 미국을 대변하는 사상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안, 미국은 커다란 경제적 변혁을 겪고 있었다. 미국의 독립 후 영국과 멕시코 연합군과 전쟁 중에도 1830년 볼티모어와 오하이오 간 철도가 개통되었고, 남북전쟁 이후 1869년에는 대륙횡단철도가 완공되었다. 철도가 19세기를 통하여 미국의 산업자본 형성에 미친 영향은 컸다. 그러나 1830년대 중반의 경제 팽창은 1837년

---

12) 오베르벡은 독일의 신학자로서 1870년부터 바젤 대학에서 신약성서와 고대 교회사를 강의하고, 이 대학에 있었던 니체와 친교를 맺었다. 원시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적, 현세부정적 성격을 발견하고 그것과의 대비에서 역사적 그리스도교를 엄격하게 비판하였다.

경제 공황으로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에 힘입은 땅 투기가 서부지역에서 유행하자, 정부가 공유지의 매입에 제동을 걸었고,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이율 인상으로 미국의 증권 가격은 폭락하였다. 아울러 미국 경제를 지탱해 주던 면화의 해외 수요도 떨어지자 경기는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sup>13)</sup> 1837년에 공황이 시작되자 수백 개의 은행과 기업이 문을 닫았고 수천 명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잃었다. 그로부터 약 5년 동안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경기침체로 허덕여야 했다. 이로서 다수의 중산층이 파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방랑의 삶으로 내몰린다. 새로운 땅에서 미국인의 정체성을 실현한다는 꿈은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혔고, 호손은 식민지 초기의 청교도적 신념과 공동체적 이상에 기반하여 건설된 미국 사회의 실체를 들여다 본 작가이다. 자신의 죄를 단죄하는 청교도 사회의 규율과 헤스터 프린(Hester Prynne)의 관계는 공동체와 개인의 갈등이라는 주제로 볼 수 있으며, 신현욱은 헤스터를 통해 청교도 사회가 “치명적인 내상” (93)을 입었다고 보았다. “청교도 사회의 특유의 억압성으로 인해 구성원들의 내면에서 사회와 자기 자신들에 대한 증오가 자라고 각 개인의 삶의 중심이 사회에서 ‘개인의 고립적 영역’ 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기 때문” 이었다(신현욱 93). 또한 에머슨이 긍정적으로 보았던 개인의 영혼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자연의 예찬은 ‘어두운 낭만주의자’ (dark romantics)라 불리는 호손과 멜빌, 포(Edgar Allan Poe, 1809-1849)에 이르면서 그 양상이 달라진다. 호손은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에 초점을 맞추었고 자연이 사회의 구속으로부터 피난처의 역할은 하지만 소로우의 『월든』에 서처럼 자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는다(Billy 153). 빌리(Ted Billy)에 따르면 포의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강의 이미지는 에머슨의 ‘투명한 안구’가 세상을 굽어보는 것과는 반대의 이미지이며, 고깃배에서의 삶을 경험한 멜빌은 에머슨 식의 자비를 결여한 자연세계의 일부로서 개인을 파악한다(154). 멜빌은 『모비 딕』 제35장 「뿔대 꼭대기」 (“The Mast-Head”)에서 바벨탑이 붕괴되는 것과 파리의 “방돔 기념 광장의 꼭대기” (top of the column of Vendome)에 세워진 나폴레옹 조형물이 1871년 파리

13) “Panic of 1837,”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Panic\\_of\\_1837](https://en.wikipedia.org/wiki/Panic_of_1837)를 참조함.

코된 때 파괴된 것을 먼저 예로 든다(179-80). 같은 장에서 “뚝대 망꾼”(masthead standers)이 맑은 날에 마스트에서 줄다가 떨어지는 상황(186)은 ‘내가 배인지 배가 나인지’ 구분이 안 되고,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뛰어드는 나르시서스(Narcissus) 같기도 한데 이러한 장면들은 에머슨의 투명한 안구와는 반대의 이미지를 연출한다. 작가로서 발돋움 할 시기에 닥친 미국 사회의 경제 불황과 문제점들로 인해 ‘어두운 낭만주의자’ 들은 에머슨과는 달리 인간의 완전함에 대한 믿음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멜빌은 “프리맨 교회”에서 “콩코드의 선지자이자 시인”(Concord seer and poet)이라는 에머슨의 강연을 들은 이후 “그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했다(Bezanson 172). 소로우는 멜빌의 첫 번째 출판물 『타이피』(*Typee: A Peep at Polynesian Life*, 1846)가 출간된 직후 논평<sup>14)</sup>을 하였다. 이때는 소로우가 윌튼 호숫가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며 명상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다(Sattelmeyer 462). 멜빌 또한 소로우의 첫 번째 작품 『콩코드 강과 메리맥 강에서의 일주일』(*A Week on the Concord and Merrimack Rivers*, 1849)을 1850년에 읽었으나 서로 간에 친분은 거의 없었다(Sattelmeyer 462). 1850년 2월부터 『모비 딕』을 쓰기 시작한 멜빌은 8월 5일 매사추세츠주의 스톡브리지(Stockbridge) 사교 모임에서 호손을 만난 후 교류하며, “지혜, 스토리텔링, 그리고 재미난 이야기”(wisdom, story-telling, and jokes)를 공유하는 가운데 『모비 딕』을 18개월 만에 완성하였고(Bezanson 176-82), 이 소설을 호손에게 헌정하였다.

자연 속에서 스스로 선택한 고독을 향유한 소로우와는 달리 본 논문의 필자가 살펴본 허만 멜빌의 핍, 바틀비, 이스마엘과 같은 인물들은 타의에 의해 고독과 소외로 내몰린 사람들이다. 소로우식의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누린 고독한 삶과는 달리 이들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하거나 무언의 항변 끝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나 또는 자아를 인식한다. 멜빌은 에머슨과 소로우의 초절주의에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개인주의와 고독이 산업화와 자본주의라는 장애물을 만났

14) 소로우는 1846년에 논평하였으며, 이 논평은 “출판되지 않은 저널의 노트북”(unpublished Journal notebook)은 “뉴욕 시 공공도서관 내 버그수집소”(Berg Collection of the New York Public Library)에 보관중이다(Sattelmeyer 462).

을 때 어떻게 인간을 변모시키는지를 탐색한 작가이다.

미국문학이 오래도록 추구해 왔던 자연과 프론티어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육체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고독이었다. 카히르(Linda C. Cahir)는 『허만 멜빌과 이디스 워튼의 작품 속의 고독과 사회』(*Solitude and Society in the Works of Herman Melville and Edith Wharton*, 1999)에서 “미국인에게, ‘외로운 상태’란 진퇴양난이면서 갈망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To an American, isolation is simultaneously a dilemma and a desire)으로, 미국문학에서 중심 주제는 야생과 맞서는 것(xiii)이라고 했다.

멜빌은 은행원과 교사 생활을 했지만 1837년 경제 공황 이후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1839년에 상선 세인트로렌스(St. Lawrence) 호를 타고 영국의 리버풀(Liverpool)로 향해하며 선원으로서 최초의 경험을 쌓기 시작한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읽을 줄 알았던 멜빌은 남아메리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Barrenechea 19), 1841년 남태평양행 고래배 아쿠쉬넷 호에 몸을 싣는다. 그러나 그는 힘든 고래배에서의 생활을 이기지 못하고 마르퀴스(Marquesas) 제도의 누쿠 히바(Nuku Hiva) 섬에 기항했을 때 탈주하여 타이피(Typee) 부족과 한 달 동안 지낸다. 그 후 호주의 고래배 루시 앤(Lucy Ann, 1842) 호를 타고 타히티(Tahiti) 섬에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본국의 군복무 거부 이유로 투옥되었으나, 탈옥하여 근처 에이메오(Eimeo) 섬에서 약 2주간의 떠돌이 생활을 한다(Barrenechea 19). 이후 그는 다시 낸터킷 선적의 고래배 찰즈 앤 헨리(Charles and Henry, 1842-1843) 호에 승선해서 라하이아(Lahaina) 섬으로 가고 호놀룰루에서 몇 달간 체류한 후 미국 군함 유나이티드 스테이츠(United States) 호를 타고 1844년 10월 보스턴으로 귀환한다. 귀향한 멜빌은 누쿠 히바 섬 타이피바이(Taipivai) 마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 자신의 첫 번째 소설 『타이피』와 두 번째 소설 『오무』(*Omoo: A Narrate of the South Seas*, 1847)를 출판하며 대중적 성공을 이끈다. 『타이피』는 저자가 식인종과 함께 생활한 경험담으로 멜빌의 생전에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오무』 또한 작가가 남태평양에서의 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누쿠 히바를 떠나 타히티 섬으로 향하는 배를 타면서 이후 발생하는 선상반란을 접하고, 자신

이 구급되는 내용이다.

이후 『마르디』(*Mardi: And a Voyage Thither*, 1849), 『레드번』(*Redburn: His First Voyage*, 1849), 『화이트재킷』(*White Jacket, or The World in a Man-of-War*, 1850), 『모비 딕』 등의 장편 소설과, 「피아자」(“The Piazza”), 「필경사 바틀비」, 「엔칸타다스」(“The Encantadas or Enchanted Isles,” 1854) 외 세 편이 수록된 중단편 소설집 『피아자 이야기들』(*The Piazza Tales*, 1856)을 펴냈다.<sup>15)</sup> 「필경사 바틀비」는 1853년 11월 월간 『푸트남』(*Putnam's Monthly Magazine*)에 처음 실렸고, 이후 본문의 내용이 약간 수정된 단편으로 『피아자 이야기들』에 포함되어 출간되었다. 다윈(Charles Darwin)이 비글(Beagle) 호를 타고 갈라파고스 제도 등지를 탐사한 후 기록한 것이 『비글 호의 항해기』(*Journal and Remarks, 1832-1836*, 1839)이다. 이 항해기가 출판된 지 2년 후에 멜빌은 매사추세츠 선적의 고랫배 아쿠쉬넷 호(Acushnet, 1841-1842)의 선원으로서 식량과 연료를 구하기 위해 갈라파고스 제도에 기항했던 경험은 「엔칸타다스」로 구체화되었다.

남태평양에서의 이국적인 삶의 묘사로 시작하여 멜빌의 소설은 제국주의, 노예제, 빈부의 격차 등으로 점철된 미국의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지만, 『마르디』와 「엔칸타다스」, 노예의 선상 반란을 소재로 한 「베니토 세레뇨」(“Benito Cereno”, 1856)는 모두 고독이나 고립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엔칸타다스」의 여덟 번째 스케치(Sketch Eighth)인 “노퍽 섬과 출라 미망인”(Norfolk Isle and the Chola Widow)의 후닐라(Hunilla)는 남편, 동생과 함께 무인도에서 거북이 기름을 채취하던 중 거센 파도에 들을 잃고 섬에 홀로 남겨진다. 무인도에서 후닐라의 평소의 시간 개념은 해와 달과 별, 또는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에 의존했을 것이다. 그러나 눈앞에서 가족을 잃은 후닐라는 외로움에 지친 나머지 시간 개념을 상실한다. 남성과는 달리 여성인 후닐라는 일 개월마다 시간을 알려주는 ‘몸시계’에 의존하게 되

---

15) 멜빌은 남북 전쟁 이후에는 『전쟁시와 전투 장면들』(*Battle Pieces and Aspects of the War*, 1866), 『클라렐』(*Clarel: A Poem and Pilgrimage in the Holy Land*, 1876) 외 두 편의 시집과 여러 편의 서평을 남겼다.

고 “몸 외에는 달력이나 시계 역할을 하는 것은 아무 것” (little, outside herself, served for calendar or dial)도 없이 지낸다(“The Encantadas” 114). 하늘이 무너질 정도의 불행한 상황과 맞닥뜨린 후닐라에게는 시간조차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타자에 의해서 시간을 알 수 있지만, 무인도에서 가족을 잃은 뒤 고립된 후닐라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점점 잃어간다. 결국 후닐라는 ‘공동체적 시간’의 개념을 상실하고 고독한 사람으로 변한다.

태평양의 작은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 무인도에서 우연히 발견한 후닐라를 구조한 (고랫배의) 선원들은 대화를 시도하지만 정확하게 그녀의 지나온 사연을 듣는데 실패한다. 블루멘탈(Rachel Blumenthal)은, 구조자들과 후닐라 사이의 대화는 “거의 완전히 해체” (almost completely disintegrated)(222)되었다고 한다. 뱃사람들이 후닐라와의 대화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조잡한 산술” (misery’s mathematics)과 “이해할 수 없는 알파벳” (alphabets of the blind) 뿐이다(“The Encantadas” 114). 후닐라는 사랑하는 남편과 동생의 생명을 파도에 빼앗긴 이후 찾아오는 슬픔이나 낙망, 그리고 혼자서 겪은 고독을 선원들에게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멜빌은 작품의 말미에서 후닐라의 언행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지금까지 알게 된 후닐라의 이야기가 거짓일 가능성으로, 선원들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 후닐라가 지어낸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독과 관련한 후닐라의 이야기 자체는 그녀를 더 이상 공동체로 되돌아갈 수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힌 고독을 경험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엔칸타다스」의 아홉 번째 스케치 “후드 섬과 은자 오벌루스” (Hood’s Isle and The Hermit Oberlus)는 후드 섬에서 수년 간 홀로 은둔 생활을 하며 바다를 기어 다니는 거북이를 유일한 친구로 둔 은둔자 오벌루스를 다룬다. “어떤 사악한 마녀의 희생물이 된 듯이, 그는 키르케의 술에 취하고, 짐승 같고, 알몸을 감추기 위해 누더기를 대충 걸친 것 같다” (“The Encantadas” 123)라고 묘사된 그의 외모는 공동체의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더 이상의 삶을 포기한 사람 같으며, 외롭고 쓸쓸해 보인다. 오벌루스는 섬에 기항한 보트를 흠

쳐 타고 에콰도르의 과야킬(Guayaquil)로 가서 여자 한 명을 태워 섬으로 되돌아오려고 하다가, 과야킬 항에서 출항 전에 체포되어 남미의 교도소로 투옥되었다(“The Encantadas” 130-31).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조국에서 추방당하고, 기독교인들로부터 배척당한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알브레히트(Robert G. Albrecht)는 이러한 오벌러스를 놓고 “최악의 죄인이자 삶의 반역자”(is the ultimate sinner, a traitor to life)(476)라고 비난한다. 비록 오벌러스가 타인과 자신의 삶을 기만한 인물일지라도, 그가 고독한 인물의 하나인 점은 분명하다.

「베니토 세레뇨」는 멜빌이 리마(Lima)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은 작품이다. 베니토 세레뇨는 흑인 노예를 운송하는 상선의 선장이지만 항해 중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에 의하여 ‘선장 겸 포로’로 전락한다. 무능한 세레뇨는 지나가던 바다표범 잡이 배의 선장이 자신의 배에 승선하자 속사정을 말할 기회를 노렸으나 기회를 놓치고 바다표범 잡이 배의 선장을 배웅하고 만다. 『모비 딕』의 제54장 「타운-호 호의 이야기: 황금 여인숙에서 들은 대로」(“The Town-Ho’s Story: As told at the Golden Inn”)는 “개작된 이야기”(re-telling)(Pusch 252)로서 주요 소재 또한 고독과 선상 반란이다. 이 장은 『모비 딕』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낸터킷 선적의 고래배 “타운-호” 호의 선원들이 태평양의 적도 부근 해역에서 고래를 잡던 중 배에 물이 새는 것을 발견 후 남미의 리마 항으로 긴급히 기항하던 중에 일어나는 이야기이다. 선원들 가운데 이리호(Lake Erie)의 항구 도시 버팔로 출신 호반인(Lakeman) 스틸킬트(Steelkilt)와 낸터킷 항 출신의 래드니(Radney)는 모두 고독한 선원들이다. 겁 없이 용감하면서 배에 물이 새는 것을 보고도 물을 막지 않고 돛을 올려 속도를 내라고 다그치는 공동 선주 겸 항해사 래드니는 고분고분한 스틸킬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혹하게 일을 시킨다. 이러한 래드니의 모습은 에이헵 선장이 모비 딕을 추격하는 데만 혈안이 된 점을 상기시킨다. 참다 못한 스틸킬트는 권총을 들고 선상반란을 일으키지만 반란을 함께 한 동료들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하면서 처량하고 고독한 신세에 놓인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소외와 고립, 표류와 구조, 공동체로부터의 탈출과 귀환 등의 소재를 멜빌이 즐겨 다루고 있음이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선상반란으로 고립

되거나 배신을 당하는 인물 모두가 소통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고독이라는 주제와 관련된다.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개인의 탄생과 미국문학 속의 고독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고독의 의미, 초절주의의 배경, 아메리칸 르네상스의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멜빌의 작품 중에서 소외와 고립, 고독한 인물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이제부터는 필자가 선정한 세 인물들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우선 제3장에서는 필자가 선정한 고독한 인물들과 대비되는 에이헵에 관해 먼저 언급한 다음, 흑인 소년 핍을, 제4장에서는 바틀비, 제5장에서는 이스마엘의 고독과 그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볼 것이다.

### 3. 『모비 딕』에 나타난 핏의 숙명적 고독

영국이나 유럽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은 개인의 해방과 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이면서, 신대륙의 미개척지를 찾아 나섰던 고독한 개척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역사를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작가들에게 개인과 고독의 문제는 미국문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럽문학과 구별 짓는 두드러진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세기 아메리칸 르네상스 시기의 미국문학은 에머슨의 초절주의를 통하여 개인과 고독의 문제를 천착한다. 에머슨은 “우리 인간의 현실은 해체되고 개별화” ([O]ur human reality is fragmented and discrete)되는 것을 인정하여(Deneen 10) 개인의 고독을 철학적으로 찬미하였다. 1836년 에머슨의 「자연」(“Nature”)이 출판되면서 초절주의 운동은 미국 문화에서 큰 원동력이 되었으며, 철학/사상으로서의 개인주의를 설파한 에머슨과 달리 소로우는 개인주의와 고독을 자신의 생활로 끌어들이어 실천하였다.

하지만 개인과 고독의 문제를 철학의 차원에서, 개인의 차원에서 다루었던 에머슨과 소로우와는 달리 허만 멜빌은 고독의 주제를 미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시켜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가라는 전제에서 본 논문은 출발한다. 멜빌이 생존한 19세기의 미국은 운하와 철도의 건설로 시장혁명이라는 경제적 변혁이 발생하고, 제국적 팽창주의가 가져온 인디언 추방과 멕시코전쟁, 그리고 노예제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남북전쟁 등의 사회변화가 일어난 때였다. 멜빌은 노예제를 반대하고 “도망노예법”(Fugitive slave laws)의 폐지를 주장하였으며, 인종차별주의와 노예제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작품에 담기도 하였다.<sup>16)</sup> 『모비 딕』은 미국 독립의 이념이 쇠퇴하고 자본주의, 인종, 노예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위기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향차

16) 김낙현·홍옥숙, 「허만 멜빌의 『엔칸타다스』에 나타난 노예제 비판」,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13, 2015, pp. 247-74. 참조.

마다 수년간에 걸쳐 세계의 대양을 항해하는 고래배에서의 삶을 소개한 『모비 딕』은 “고립된 개인과 인적 유대감 사이의 대조”(the contrast between the isolated individual and human bonding)에 있어서도 이야깃거리가 풍부한 작품이다(Gesler 31).

19세기 초반 고래에서 얻은 기름은 방직기계와 크로노미터용 윤활유, 가정용 등유, 향수나 비누의 원료로 사용되었던 중요한 소비재이자 생산재였다. 포경업은 미국과 유럽의 산업을 지탱하였고, 후발주자였던 미국은 유럽을 앞질러 대서양을 벗어나 태평양까지 진출하여 고래를 잡아들이면서 막대한 이윤을 얻었다. 이들 고래배는 기름을 많이 함유한 향유고래를 찾아 나섰으며 고래 머리통에서 기름을 퍼낸 후 가공한 것으로는 “경뇌유”(sperm)(484)와 “경뇌/경랍”(spermaceti)(496)이라고 불렀고, 몸통과 꼬리 부위에서 짜낸 기름을 “체유”(oil)(496)로 구분하였다. 석유가 연료로써 개발되기 전 19세기 미국의 고래배는 고래 기름을 공급함으로써 당시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며, 언제나 긍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지리적 발견이라는 역사적인 면에서도 그 기여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sup>17)</sup> 지구에서 가장 덜 알려진 외진 곳을 찾아내는 “개척자”(pioneer)는 고래배였다. 고래배는 “쿡 선장이나 밴쿠버도 항해한 적이 없었고 해도에도 없는 바다와 군도”(seas and archipelagoes which had no chart, where no Cook or Vancouver had ever sailed)를 탐험했다(129). 멜빌은 고래배 선원으로서 태평양을 항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래를 잡는 일에 관해서 어떤 작가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피쿼드 호에 승선한 “선원-이스마엘”(sailor-Ishmael)이 아닌 “이스마엘-화자”(Ishmael-narrator)(Bezanson 184)의 서술을 통해 작품이 전개됨과 동시에 고독의 이미지 또한 끊임없이 이어진다. 작품의 가장 중요한 무대인 고래배 피쿼드 호는 하나의 “사회집단”(social group)으로서 생동감 있는 등장인물들이 드라마의 배역을 맡은 “떠다니는 섬”(floating island)으로 보인다(Gesler 31). 본

17) 고래배 조업 해역의 확장으로 인한 지리적 발견이 이루어졌다. 갈라파고스 제도나 남극 대륙에서 발견되는 고래 뼈 또는 고래 기름을 짜는 시설물과 폐선들은 고래배 선원들의 활동 범위를 짐작하게 해준다. 일본의 개항(1854년) 또한 미국이 자국의 고래배 기항지를 일본 측에 요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장에서는 피쿼드 호 선원들 중 일부 고독한 인물들을 먼저 고찰한 후 핍의 실성과 그가 감내하는 숙명적 고독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고래의 기름을 얻고자 모여든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 공동체라 할 피쿼드 호에서 핍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이다. 고래배에 딸린 보트에서 두 번이나 물에 뛰어 들었다가 구조되지만 그는 실성해 버린다. 핍이 물에 빠지는 경험은 에이헵을 비롯한 모든 선원들이 모비 딕과 벌이는 사투의 결과를 예견하게 한다는 점을 이스마엘은 분명하게 밝힌다.

### 3.1 에이헵과 피쿼드 호의 고독한 인물들

피쿼드 호에 모여든 사람들은 마치 신생국가 미국의 축소판처럼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 피쿼드 호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택한 이들은 선장 에이헵부터 말단 집사인 핍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독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 1897-1962)의 말을 빌리자면 에이헵은 “미국문학에서 가장 독창적 인물로 외다리를 가진 영웅”(one-legged hero as the most original character in American letters)(Boren 1)이며, 고독을 논의하는 본 논문에서도 의미 있는 인물이다. 선장 에이헵은 사회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킨 사람이며, 와터즈의 표현대로 자발적 외톨이의 전형이다. “에이헵은 지구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 가운데 혼자 서 있어. 신들도 인간도 에이헵의 이웃은 아니야!” (Ahab stands alone among the millions of the peopled earth, nor gods nor men his neighbors!)(639)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에이헵의 고독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도 아니며 오히려 홀로인 상태만을 강조하는 이기성(利己性)을 드러낸다. 또한 그의 고립은 “스스로를 차단한 개인주의”(self-enclosed individualism)에서 기인한다(Hirsch 175). 에이헵은 흰고래 모비 딕에게 한쪽 다리를 잃은 후 복수심에 불탄 나머지 향유고래의 턱뼈로 만든 의족을 한 채로 대양을 항해하면서 모비 딕을 추적중이다. 에이헵의 유일한 선원들과의 접촉은, 모비 딕을 발견하는 자에게 스페인 금화를 주겠다고 하면서 모두의 결의를 다지게 하는 등 자신의 외골수 복수심을 선원들과 하나로 묶는

것이다. 그는 바다를 정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오늘날 일종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다. 에이협은 선원들을 자신의 복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뿐이며, 선장으로서의 임무인 고래잡이와 고래기름의 채취는 안중에도 없다. 고래 기름을 구하는 것이 피쿼드 호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스타벅에게 총을 겨누면서 “지상에 군림하는 신은 하나뿐이고, 피쿼드 호에 군림하는 선장도 하나뿐” (There is one God that is Lord over the earth, and one Captain that is Lord over the Pequod)(551)이라고 할 정도이다. 당시 항해법상 선장의 허락 없이 항로를 바꾸거나 키를 돌려 변침하는 행위는 즉결심판을 하며 심할 경우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다. 선장실의 에이협은 모디 덕을 잡기 위해 피쿼드 호의 항로와 해도를 연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갑판 위의 누구도 피쿼드 호의 항로를 변경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에이협은 모비 덕과의 대결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선원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에이협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자신에게서 지워버리려고 한다. 에이협은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주변 환경에 의하여 소외된 인물이 아니라 광기를 앞세운 나머지 스스로를 주변으로부터 소외시킨 인물이다. 실성한 핼을 갑판에서 만나 선장실로 데려가는 것 외에 에이협이 나름대로 “인간미”(humanities)를 지녔다고 할 만한 장면은 없다(Donoghue 163). 에이협은 “같이 가자! 나는 황제의 손을 잡은 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너의 검은 손을 잡고 가는 편이 훨씬 더 자랑스럽구나!” (Come! I feel prouder leading thee by thy black hand, than though I grasped an Emperor’s)(604)라고 핼에게 말한다. 『모비 덕』이 인종차별과 노예제옹호를 비판하는 텍스트로 끝나지 않고 자본주의, 인종, 노예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에이협과 핼의 관계는 백인과 흑인 또는 선장과 선원의 이분법과는 상반된다. 멜빌이 이들의 관계를 “도망노예법”을 옹호함으로써 핼과 같은 흑인 노예를 희생물로 상징화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다(Foster 25). 핼과 에이협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선원은 “이제 미치광이 둘이 가는군” (There go two daft), “하나는 강해서 미쳤고 또 하나는 약해서 미쳤어” (One daft with strength, the other daft with weakness)라고 중얼거린다(604).

유일하게 에이헵을 인간적으로 동정하고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은 핏으로, 에이헵과 핏 사이에는 인종과 신분을 뛰어넘은 소통의 가능성이 미약하게나마 제시된다. 핏은 에이헵의 잃어버린 한쪽 다리를 대신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에이헵 신체의 일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밟고 일어서라고 부탁한다. 핏은 에이헵에게 “보잘것없는 제 몸을 선장님이 잃어버린 한쪽 다리로 사용해 주세요” ([Y]e have not a whole body, sir; do ye but use poor me for your one lost leg)라고 애원하지만, 에이헵은 핏에게 “야야, 지금은 에이헵을 따라오면 안 돼” (Lad, I tell thee thou must not follow Ahab now)라고 거부한다(616). 결국 유일한 타인과의 교류의 기회를 거부함으로써 에이헵은 피쿼드 호의 예정된 운명을 바꿀 가능성을 차단한다. 모비 딕에 대한 집착과 광기로 다져진 에이헵의 고독은 본 논문에서 초점을 맞춘 세 인물들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과는 다르다. 핏, 바틀비, 이스마엘이 사회적으로 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을 지니고 있는 것과 달리 에이헵은 개인의 복수심과 편집광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스스로 고독을 택하고 공동체와의 유대를 차단한다. 에이헵이 택한 자발적인 고독은 사회적 소외의 결과로 ‘외로움’을 느끼는 인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 논문의 방향과는 잘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에이헵에 관해서는 논문에서 다른 세 인물과 대조적임을 언급하는 정도로 그치고자 한다.

피쿼드 호는 다양한 인종이 모여 구성된 미국 사회를 상징한다. 선장 에이헵의 지시를 따라 본선 피쿼드 호를 타고 항해하던 선원들은 고래를 발견한 이후부터는 본선에 딸린 소형 보트들을 내리고 추격한다. 각각의 보트에는 리더 격인 항해사 세 사람, 즉 스타벅과 “스터브”(Stubb), “플래스크”(Flask)가 휘하에 “작살잡이”(harpooneer)와 노를 젓는 소수의 선원을 대동하게 된다. 세 항해사는 미국 본토 출신의 백인인 반면, 작살잡이는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남태평양의 식인종 출신인 퀴퀘그, 아메리카 원주민인 타슈테고(Tashtego), 흑인 다구(Daggoo)가 그들이다(139-40). 중세의 기사담이나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Don Quixote)와 산초 판자(Sancho Panza)를 연상시키는 이들의 관계를 멜빌은 “기사와 종자”(knights and squires)로

묘사한다(133). 피들러(Leslie A. Fiedler)가 말하는 미국문학에서 나타나는 백인 주인공과 유색인 조력자의 관계가 여기서도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들러는 『미국 소설에서 사랑과 죽음』(*Love and death in the American novel*, 1960)에서, 에이헵과 “페달라”(Fedallah)와의 관계는 “파우스트식의 흥정”(Faustian bargain)을 하는 관계(434)이고, 이스마엘과 퀴퀘그와의 관계는 쿠퍼의 『개척자들』(*The Pioneers*, 1823)에 등장하는 “내티”(Natty)와 “칭가츠크”(Chingachgook)의 관계처럼 “사랑하는 동년배들”(coeval loving pairs)이라고 지칭한다(349). 항해사들은 백인으로서 두뇌를 제공하고 작살잡이들은 유색인종으로서 근육을 제공하여 각각 조력자이면서 협력관계에 있지만 백인이 상위에, 유색인이 하위에 놓이는 미국 사회의 위계질서는 피쿼드 호에서도 되풀이된다.

이어서 이스마엘은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와 민족 출신의 하급선원이 더 많은데도 상급선원은 본토 출신의 백인으로 구성되는 피쿼드 호의 상황이 고래배에만 해당되지 않음을 밝힌다. 미 육군이나 상선단, 운하와 철도 건설에 투입된 공병대도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에 미국 출신이 기꺼이 두뇌를 제공하고, 세계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인심 좋게 근육을 공급”(in all these the native American liberally provides the brains, the rest of the world as generously supplying the muscles)(140-41)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면서도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미국의 실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배에는 미국인 외에 네덜란드인, 프랑스인, 아일랜드인, 중국인, 라스카르(말레이)인, 포르투갈인과 아이슬랜드, 몰타, 시실리, 맨, 케이프 베르데의 산티아고(St. Jago), 타히티 섬 출신의 선원들이 동승하고 있다. 난터킷을 출항한 피쿼드 호의 항로를 보면, 북대서양을 가로질러 유럽 연안에 도착하면 포르투갈령 아조레스(Azores) 제도 등지에 기항하여 섬의 농부들을 선원으로 고용한다.

피쿼드 호의 선원들 “대부분은 섬에서 왔으며”(nearly all Islanders)(141) 이스마엘을 포함한 일부 선원만 내륙 출신이다. 존 던(John Donne, 1572-1631)의 “어떤 인간도 그 자체로 섬이 아니다”(No man is an island, entire of

itself)(1278)라는 말을 뒤집는 이 구절에서 멜빌은 ‘섬사람’이라는 이탈리아 어인 ‘isolato’란 단어를 고립된 외톨이라고 해석함으로써 고독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선원들을 강조한다. 하지만 선원들의 고독은 단지 혼자 있음으로써 맛보는 고독이기보다는 포경업이라는 거대산업에서 하나의 부속품처럼 움직이고 소모되는 그들의 삶에 수반되는 소외감이다. 어려서 “계모”(stepmother)로부터 구박을 받아온 이스마엘은 누구보다도 외로움에 익숙했다(30-31). 그의 외로움과 피쿼드 호 동료 선원들의 외로움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공동체와 멀어진 존재라는 것은 공통적이다. 외로움에 익숙한 이스마엘이 바라보는 피쿼드 호의 선원들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외로운 사람들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원양 항해 중에 겪는 외로움에 대해서 익숙하다. 고향을 떠나 피쿼드 호에 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선원들은 결국은 미국의 자본에 따라 움직이는 포경업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이다.

이스마엘과 퀴퀘그가 만난 고래배의 선주들은 퀴퀘그가 처음에는 식인종이고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를 배에 태우지 않으려고 한다. 이스마엘이 퀴퀘그가 “제1조합 교회”(the First Congregational Church)(104)의 일원이라고 하자, “펠레그”(Peleg) 선장과 “빌대드”(Bildad) 선장은 퀴퀘그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이스마엘은 퀴퀘그 또한 선장을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의 영혼이 속한 교회의 최초의 신도임을 웨이커 교도인 선주들에게 설득하고, 무엇보다 퀴퀘그가 작살 던지는 실력을 보여주자 선주들은 태도를 바꾼다. 펠레그 선장은 빌대드 선장을 설득한다.

“그만 해, 빌대드. 그만해. 우리 작살잡이를 망치지 마.” 펠레그가 외쳤다. “경건한 작살잡이는 절대로 훌륭한 뱃사람이 될 수 없어. 독실한 신앙은 작살잡이한테서 상어 같은 흥포함을 없애버리지. 흥포하지 않은 작살잡이는 한 푼의 가치도 없어.”

‘Avast there, avast there, Bildad, avast now spoiling our harpooneer,’ cried Peleg. ‘Pious harpooneers never make good voyagers—it takes the shark out of ’em; no harpooneer is worth a straw who ain’t pretty

펠레그의 설득으로 빌대드는 종교적 신념과 경제적 가치관을 저울질 한 뒤 현실과 타협함으로써 신념을 바꾼다. 퀘이커 교도이자 선장인 두 사람은 결국 신앙심 깊은 작살잡이보다는 유능한 작살잡이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퀘이커를 고용한다.

퀘이커들은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종교 의식이나 성직자의 중재 없이도 누구나 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급진적 신앙을 주장하여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아메리카로 건너온 이후에는 지배적인 청교도들의 박해를 이겨내고 뉴잉글랜드에 자신들만의 예배당을 만들었고 낸터킷은 퀘이커들의 본향이라 할 만한 곳이었다. 멜빌은 노예제 폐지와 평화주의로 유명했던 퀘이커들을 『모비 딕』에 등장시키는데, 고어링(Wynn M. Goering)에 따르면 퀘이커 소유의 배로 퀘이커들의 항구인 낸터킷에서 출항하며 일등항해사 스타벅이 퀘이커이며 에이협 역시 ‘thee’ 나 ‘thou’ 를 사용하는 버릇으로 미루어<sup>18)</sup> 그의 종교적 전통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모비 딕』의 고랫배 피쿼드 호는 전적으로 퀘이커들의 사업이다(519). 고랫배에서는 선원들이 월별로 수령하는 임금 대신 배에서 내릴 때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 이스마엘은 고용계약을 하면서 순이익의 1/275를 보수로 기대하고 1/200까지도 기대한다. 빌대드와 펠레그는 피쿼드 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고아와 과부들을 포함한 선주들에게 가야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배당을 먼저 1/777으로 제시했다가 1/300으로 결정한다(91-92). 이 장면은 잘 짜여진 코메디의 각본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빌대드와 펠레그가 환상적인 조합을 보여준다. 철저하게 이타적이고 신을 존중하며 지옥을 두려워하지만, 한편으로는 돈벌이가 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퀘이커들의 양면적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배를 타는 것에 대해 낭만적으로 포장되었던 이스마엘의 동기가 실제로는 3년의 항해 기간 동안 숙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밝혀지고, 세상사에는 관심이 없이 신과의

18) 17세기에 이르면 이인칭 단수 대명사인 ‘thou’ 는 시나 문어체 외에는 잘 사용되지 않았으나, 퀘이커들은 ‘you’ 대신 ‘thou’ 의 사용을 계속 고집하였다.

합일을 중요시하는 듯이 보이는 퀘이커들도 포경업을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라는 경제 논리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퀘이커에 관해서도 빌 대드는 기독교인만을 배에 태울 것을 고집하지만, 펠레그 선장은 신앙보다는 고래잡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상관없다는 태도를 취한다. 어찌 보면 편협한 인종주의나 종파를 초월한 인도주의적 태도로 “죽음과 최후의 심판”(Death and the Judgment)보다는 “모든 선원을 살리고—임시 돛대를 세우고 가까운 항구로 들어가는 것”(how to save all hands—how to rig jury masts—how to get into the nearest port), 즉 “삶”(life)(107)이 더 중요하다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평화주의자에서 태도를 바꾸어 고래를 용감하게 사냥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포경업을 장악한 퀘이커들의 실리적 면모가 돋보인다고 하겠다. 어쨌든 고래배를 타고 고래를 잡는 일은 낭만과는 거리가 먼, 생존의 문제와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사업이며, 다양한 지역 출신의 선원들 또한 피쿼드 호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모이게 되나, 고래배가 경제논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은 외톨이인 선원들이 외로움을 벗어나 동료애를 발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2 펩의 실성과 고독

약 700쪽에 135장으로 구성된 『모비 딕』에서 가장 고독한 인물은 펩이라 말할 수 있다. 가장 긴 제54장 「타운-호 호의 이야기: 황금 여인숙에서 들은 대로」는 25쪽의 분량이지만, 펩이 주로 등장하는 제93장 「버림받은 표류자」(“The Castaway”)는 4쪽 반에 불과하다. 짧은 동요가 오랜 세월 동안 구전되듯이, 「버림받은 표류자」는 멜빌이 작은 분량을 할애한 반면 ‘버림받은 표류자’ 펩의 고독을 독자의 뇌리에 오랫동안 각인시키는 효과를 염두에 둔 장이라 할 수 있다. 소설의 서두에서 이스마엘이 자신을 이스마엘로 불러달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이름이 확정적이지 아니며, 이스마엘이 구약에서 가지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자신의 처지를 내쫓긴 자로 이해해달라는 의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펩의 본명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며, 단지 별명이 “피핀”(Pippin)(479) 또는 펩으로 통한다는 사실은 이스마엘 만큼이나 펩이 소외된

인물임을 나타낸다. 흑인인 핍은 이스마엘보다 피쿼드 호의 동료들로부터 더 소외된 존재이며, 두 번이나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되는 경험을 하고 난 이후 자신만의 세계로 침잠해 들어간다. 멜빌은 동료 선원들로부터 소외된 핍의 고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고찰한다.

출항한 지 한참이 지나도 선장실에 틀어박혀 있던 에이헵은 모든 선원들을 갑판 위로 불러 모아 항해의 목적이 단순한 고래잡이가 아니라 지옥 끝까지라도 흰고래를 추격하여 죽이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선원들의 동참을 촉구한다. 멜빌은 제40장 「상갑판-자정」(“Forecastle-Midnight”)에서 선원들이 한밤중에 모여서 술을 마시며 떠드는 장면을 연극처럼 묘사한다.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핍은 노래를 부르며 선원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이다. 모비 딕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흥을 즐기는 선원들의 모습은 유일한 관객이자 독선적인 선장을 두고 즐거운 연기를 하는 듯하다. 피쿼드 호라는 움직이는 무대 위의 선원들로 구성된 배우들은 선실에 박힌 에이헵의 복수심을 속으로만 고려하지 않는다. 핍은 즐리지만 선원들의 요구에 따라 탬버린을 치고 노래를 부른다. 가무를 즐기던 앞갑판의 선원들은 뒷갑판의 항해사 목소리를 듣고 핍의 노래를 중단시킨다.

**넌터킷 출신 선원 2:** 노래 그만! 팔점 종이야! 이봐, 종치기! 종을 여덟 번 쳐. 핍! 감동이 놉아! 당직은 내가 불러주지. 나는 입이 커서 큰 소리로 누군가를 부르기에는 안성맞춤이거든! 그래, 그래, (머리를 승강구 밑으로 밀어 넣고) 우-현--! 팔점 종이야. 당장 갑판 위로 올라와!

**2D Nantucket Sailor:** Avast the chorus! Eight bells there! d’ye hear, bell-boy? Strike the bell eight, thou Pip! thou blackling! and let me call the watch. I’ve the sort of mouth for that—the hogshead mouth. So, so, (*thrusts his head down the scuttle,*) Star-bo-l-e-e-n-s, a-h-o-y! Eight bells there below! Tumble up! (202).

도심에서 매시마다 울리는 종소리와는 달리 해상에서는 정시와 매30분마다 종

을 치며, 종을 칠 때의 패턴 또한 각각 다르다. “팔점종”(eight bells)(202)은 자정을 기준으로 네 시간마다 종을 치며, 종을 칠 때 마다 두 번 연속으로 4회씩 치는 것이다. 곧이어 이들은 “당직”(watch)(202)으로 하여금 종을 쳐서 현재 시간을 통보하라고 한다. 갑판 위에서 흥겨운 시간을 보내는 선원들이 뿔을 대신하여 당직을 불러준다는 것은 선원들이 거친 말투 속에서도 뿔을 배려하는 동료애가 엿보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뿔은 선원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 혼자 남아 에이협스의 광기에 휘둘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할 정도로 상황을 똑바로 파악할 총명함을 지니고 있다. 뿔은 자신을 포함한 피쿼드 호의 항해가 어둠 속 항해라고 생각하며, 저 어둠 너머 밝음 속 어딘가에 있을 신의 자비를 갈구한다.

오오, 저 높은 어둠 속 어딘가에 있는 크고 **하얀 신**이여, 여기 밑에 있는 이 작은 검둥이 소년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두려움을 느낄 내장도 없는 자들로부터 그를 지켜주소서!

Oh, thou big **white God** aloft there somewhere in yon darkness, have mercy on this small black boy down here; preserve him from all men that have no bowels to feel fear! (208)

뿔이 기도하면서 찾는 “하얀 신”은 백인 노예주들이 흑인 노예들에게 강요한 종교의 신이며 백인들의 신으로 볼 수 있다. “백인은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모든 유색 인종보다 우위”(white man ideal mastership over every dusky tribe)(220)에 있다는 이스마엘의 진단처럼 백인을 우월한 존재로, 흑인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사회적 관념이 어린 뿔에게도 이미 각인이 되어 있다. 그가 원하던 원치 않든 간에 이미 뿔은 백인 우위의 미국 사회에 편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급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피쿼드 호의 선원 중에서 뿔과 대조적인 흑인 다구가 있다. 그는 6피트가 넘는 장신으로 “거구에 석탄처럼 검은 피부의 흑인-야만인”(a gigantic, coal-black negro-savage)이지만 “사자와 같은 걸음걸이”(a

lion-like tread)에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Ahasuerus)와 같은 풍모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140). 그를 올려다보면 “육체적인 겸손”(corporeal humility)(140)을 느끼게 되고 앞에 선 백인은 마치 휴전을 간청하러 백기를 들고 온 사람으로 보인다고 묘사하면서도, 다구가 작달막한 백인 플래스크의 지시에 따르는 인종차별적인 현실과의 괴리를 짚어준다. 그러나 실상은 피쿼드 호의 선원 중에서 뿔은 배에서 노래하고 춤을 출 때 외에는 소외를 당하는 막내 선원에 지나지 않는다. “깡마르고 서툴고 겁 많은”(an unduly slender, clumsy, or timorous)(479) 막내 선원 뿔은 작살잡이 보트를 탄 선원들이 고래를 추격하는 동안에 피쿼드 호에 남아 배를 돌보는 “배-지킴이”(ship-keeper)를 하는데, 대개의 “배 지킴이들”은 건장하지만 뿔처럼 마음이 여린 선원이 본선을 지키는 경우도 있다(479). 이등 항해사 스티브가 지휘하는 작살잡이 보트의 노잡이가 손을 다치게 되자 뿔은 그를 대신해서 처음으로 탄 작살잡이 보트의 노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한때 선원들과 신나게 어울려 탬버린을 치던 뿔이지만, 막상 고래잡이가 시작되자 그는 방해물로 전락해 버린다.

낸터킷을 출항한 고래배들은 대서양과 인도양을 포함하여 먼바다 태평양까지 항해한 후 귀환한다. 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걸리는 원양 항해이다. 고래배는 선단을 이루지 않고 독립적으로 항해하며 한 척의 모선에 서너 척의 작살잡이용 보트를 싣고 다닌다. 피쿼드 호의 경우 네 척의 보트를 싣고, 약 삼십 명의 선원을 태운다. 고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고래배 돛대의 꼭대기에서 고래 분수공을 통해 수면 위에 솟아오르는 물보라를 찾아야 한다. 발견 즉시 고함을 치고, 모선에서 보트를 내린다. 각각의 보트에는 제1항해사, 제2항해사, 제3항해사 중 한 명씩을 비롯하여 한 명의 작살잡이와 네다섯 명의 노잡이가 타고 본격적으로 고래를 추격하기 시작한다. 본의 아니게 “배-지킴이” 뿔은 작살잡이가 타는 소형 보트를 타고 노잡이가 된 것이다. 처음 타는 보트에서 노를 잘 젓지 못하는 뿔을 놓고 동행한 선원들은 불만이 많다.

뿔은 나이가 어린데다 동료들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크게 보면 인간은 동고동락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서로 협동하지만 목전의 경제적 가치를 생각할 때는 동료애와 자비심을 뒤로 하는 경우가 많다. 뿔은 피쿼드 호

의 사환에서, 배-지킴이, 보트의 노잡이를 거쳐 표류자로 전락한다. 항해사 스테르브는 동료들 아끼기는 하지만 자비심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 핼 때문에 고래잡이에서 벌어들이는 금전적 이익을 잃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바다에 빠진 핼을 구해준 후, 그는 앨라배마에서 거래되는 고래 한 마리의 가격은 핼의 몸값보다 “서른 배”(thirty times)(481)와 맞먹는다고 내뱉는다. 이러한 스테르브의 말은 이윤 추구가 우선인 사회의 가치관을 보여주며, 피쿼드 호의 고래잡이 역시 미국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핼은 일개 고래 한 마리보다 못한 존재로 간주된다. 코네티컷 출신이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핼은 당연히 앨라배마의 흑인노예와 같은 존재로 취급된다. 핼은 요나(Jonah)와 “같은 핼줄”(the same blood)을 나누었지만 허망한 동료 선원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부패로 가득한 사회”(full burden of a corrupt society)를 느낀다(Pardes 153). 핼은 노예제가 정당화 되던 19세기 미국의 산물이다. 그는 피쿼드 호 공동체의 일원이지만 몸은 한낱 사물과 같은 노예와 비슷한 처지이다. 멜빌은 핼을 통해 노예제와 경제논리 탓에 나타나는 공동체 속 인간의 고독과 소외를 고발한다.

핼이 두 번째로 바다에 빠졌을 때, 작살잡이 보트의 스테르브 일행은 핼을 내팽개쳐 두고 고래만 쫓아간다. 에이헵 선장에 복종하여 모비 딕의 추격에 가담하느라 핼을 구할 시간은 없는 것이다. 고래를 잡는다는 원래의 목적은 피쿼드 호의 선원들에게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하지만, 이런 이익 추구는 공동체의 일원인 핼을 무시하고 망각하는 결과를 낳는다.

불쌍한 핼은 바다 한가운데서 그의 곱슬곱슬한 검은 머리를 태양 쪽으로 돌렸다. 태양도 역시 그렇게 높은 하늘에서 것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핼과 마찬가지로 외로운 미아였다.

Out from the center of the sea, poor Pip turned his crisp, curling, black head to the sun, another lonely castaway, though the loftiest and the brightest. (482)

수면에서부터 물 위에 떠있는 펄의 눈까지의 거리를 15cm라고 한다면, 펄과 수평선 사이의 거리는 약 1.4km이다. 결국 펄 주위에는 자신을 제외한 누구도 보이지 않으며 사방이 수평선 밖에 보이지 않는 물에 떠서 홀로 남게 된다. 이 같은 수치는 펄빌이 고랫배를 직접 타 본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과학적인 결과이다.<sup>19)</sup> 사방 아무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표류자” 이자 집을 잃은 펄과 이를 지켜보는 태양은 펄처럼 또 다른 “미아” 이다(479). 하나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길과 집을 잃은 나머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둘 다 서로 도와줄 수 없고, 그저 묵묵히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펄은 자신의 머리를 태양을 향하여 돌린다.

에머슨은 홀로 맨땅에 서서 신선한 공기로 목욕을 하고 무한한 공간 속에서 행복감을 느낄 때, 즉 자연을 향유할 때, “투명한 안구” (transparent eyeball)가 되어 아무것도 아닌 채, 모든 것을 바라본다고 하였다(“Nature” 6).

맨땅에 서면—내 머리는 상쾌한 공기로 휘날리고, 무한한 공간 속에서 희망으로 가득차고—모든 것의 의미인 자만은 사라진다. 나는 투명한 안구가 된다. 나는 아무 것도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본다. 우주적 존재의 전류는 나를 통해 순환한다. 나는 신의 일부 또는 신이 주신 선물 꾸러미이다.

Standing on the bare ground—my head bathed by the blithe air, and uplifted into infinite space—all mean egotism vanishes. I become a transparent eyeball; I am nothing; I see all; the currents of the Universal Being circulate through me; I am part or parcel of God. (“Nature” 6)

케이텡(George Kateb)은 에머슨의 세계에서는 “지성을 수작업, 육체적인 것, 실질적인 것, 비언어적인 것, 이 모든 것에 봉사하는 정신적인 것 위에 두고 있다”(the intellect elevated above the manual, the physical, the practical, the nonverbal or the mental that serves any of these)(36)라고 한다. 앞서 말한

19) 공식은  $d = 3.57\sqrt{h}$  (거리  $d$  = kilometres, 높이  $h$  = meters)(Maxwell 58).

‘지성’을 제외한 후자의 표현 양식들은 “자기 신뢰”(self-reliance)에 들어맞기는 하지만 이들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시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Kateb 36), 에머슨의 사상은 한마디로 “지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비판적인 시선을 던진다. 하지만 에머슨이 역설한 “아이의 눈과 마음으로 들어오는 태양” ([the sun] shines into the eye and the heart of the child)(“Nature” 6)이 『모비 딕』에서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밝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외로운 조난자”(another lonely castaway, though the loftiest and the brightest)(482)일 뿐이라고 묘사된다. 에머슨의 ‘아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적 ‘아이’이고, 멜빌의 ‘조난자 내지 표류자 핍’은 현실 속의 ‘아이’로 사상적, 문학적 괴리감이 커지는 부분이다. 에머슨이 찬미하던 투명한 안구 대신에 등장한 태양은 핍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이 장면에서 멜빌은 에머슨의 초절주의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관념적 이론에 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핍의 영혼이 바다 깊은 곳으로 침잠해갈 때, 불가항력에 처한 그로서는 “‘지혜’라는 이름의 인색한 인어왕자가 산더미처럼 쌓인 자신의 보물”(the miser-merman, Wisdom, revealed his hoarded heaps)을 드러내는 것과 영원의 세계와 거대한 천체를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483). 수영도 잠영도 할 수 없는 핍의 상황은 영원의 세계와 보물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고독 속에서 행복감에 젖어 만물을 바라보는 에머슨의 투명한 안구와는 달리 핍의 눈은 그에게 드러나는 온갖 형상들을 제어할 수 없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 핍은 다른 선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너머의 세계를 분명히 목격하지만, 거대하고 영원한 바다의 고독은 그를 영원히 변화시켜 놓았다. 핍의 영혼은 동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 즉 인간 세계를 벗어난 저 너머의 영역에 머무른다(Massie 118). 핍은 구조된 이후부터 “백치”(idiot), “미쳤다”(mad), 또는 “미치광이”(daft)(16, 482, 483, 604)라고 불리게 된다.

멜빌은 “인간의 실성은 하늘의 분별”(man’s insanity is heaven’s sense)이며, “인간의 모든 이성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인간은 이성으로 보면 불합리

하고 황당무계한 천상의 사고에 도달한다”(wandering from all mortal reason, man comes at last to that celestial thought, which, to reason, is absurd and frantic)고 한다(483). 하지만 그 실성의 대가는 하늘의 분별이므로 선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핼이 깨닫게 된다. 피들러는 실성한 핼에 대해, 요나(Jonah)가 고래의 뱃속에서 나온 후에 지혜를 얻었듯이, 핼은 “베틀의 발판 위에 있는 신의 두 발”(God’s foot on the treadle of the loom)(483)을 보았기 때문에 “성스러운 광기로 영원히 축복을 받았다” ([Pip] was forever after blessed with holy madness)고 한다(545-46).

인간 스스로가 작정해서 미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멜빌은 물에서 찾지 못한 또 다른 영혼의 세계를 찾아 항해하면서 핼을 내세워 자신의 이상향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의 실성은 하늘의 분별”(man’s insanity is heaven’s sense)(483)이라는 이슈마엘의 언급은 하늘의 분별이 이성적인 인간의 판단이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핼을 볼 때, 인간이 이성으로만 바라본다면 그저 실성한 아이로 보일 뿐이다. 피쿼드 호의 선원들 뿐 아니라 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세계를 핼은 하늘의 분별에 의하여 얻은 것이다. 매시는 인간의 ‘논리적, 이성적’ 세계와 대비하여 하늘의 분별을 “신의 비논리”(the unlogic of God)(119)라고 쓰고 있다.

배에 탄 사람들 중 일부는 핼의 실성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에이헵은 핼의 정신이 “미지의 세계”(unknown worlds)(611)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스타벅은 “그래서 나는 저 불쌍한 핼 녀석이 실성에서 오는 야릇한 친절로 우리 모두의 집이 천국에 있다는 신성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믿어”(So, to my fond faith, poor Pip, in this strange sweetness of his lunacy, brings heavenly vouchers of all our heavenly homes)(557)라고 말을 함으로써 선원들과는 다른 판단을 한다. 특히 핼이 실성하고 나서 에이헵과 서로 가까워진다는 점에서 피들러가 말하는 백인과 유색인 간의 협력관계나마 맺을 가능성이 보이기도 한다. 배에서 핼은 어떤 백인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었지만, 핼과 에이헵 사이를 실성한 사람들만이 알고 정상인의 사고로는 이해 불가능한 그 무엇인가가 연결한다. “맨 섬”(Isle of Man)(602) 출신 노인 선원의 말대로

둘 다 실성했기 때문에 서로 고독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잠시나마 교감을 나누기도 한다. 핍은 기꺼이 에이헵에게 도움을 주고 그의 다리가 되겠다고 나서지만(604), 고래를 향한 복수심만을 품은 에이헵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핍은 현실에서는 더 이상 공동체와 소통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 3.3. 핍의 숙명적 고독

흑인 소년으로서 인종차별과 사회의 핍박을 받는 핍의 고독은 타고난 것으로 숙명적이다. 핍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공동체’인 배의 사회 구조에서 경제적 이윤 추구와 인간애 사이의 교차점에 놓인다. 핍이 배를 떠나 물에 빠진 것은 틀림없지만, 고래를 좇느라 아무도 핍을 구조하지 않음으로써 핍은 소외되고, 고독을 절감한다. 못사람의 운명이 그렇듯 누구도 내일을 내다볼 수 없다. 핍 또한 이러한 운명을 피하지 못한다. 핍을 포함해서 함께 승선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합치더라도 알 수 없는 것이 앞으로 닥쳐올 인간사이다. 퀴퀘그의 “요조”(Yojo)(81)를 비롯하여 천체의 별이나 달, 동물의 내장, 쌀, 타로 카드 등을 이용한 점술이나 예언자의 말은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위안이 되지만 책임 소재가 모호한 것으로 결과는 전적으로 의뢰인이 감당할 부분이다. 갑자기 물에 빠질 핍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듯이, 가장 불행한 삶을 보내는 사람은 닥쳐올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는 사람이다.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핍은 홀로 되기를 원하는 ‘고독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외롭고 쓸쓸한 의미의 ‘고독한’ 사람이다. 핍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한 후, 자신만의 내면세계로 침잠해 들어간다. 수평선 아래에서 핍이 천국을 잠시나마 느끼는 순간과 혼자라는 공포감에 휩싸인 핍의 모습이 겹쳐진다는 것은 혼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혜’가 들어찬 그의 내면세계를 보여준다. 고정된 날실은 ‘필연’의 모습을 한 것이고, 씨실은 ‘우연’의 모습을 한 시간의 베틀로서 핍을 포함한 누구도 우주적 차원의 우연과 필연 사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진실은 고독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내부 지향적인 것으로, 핍은 마침

내 또 다른 현실을 보게 됨으로써 자신을 알게 된다. 실성한 핍이 얻은 지혜는 이성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고 이해를 할 수 없다. 선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세계를 소유함으로써 핍은 공동체로부터 더욱 더 멀어지게 된다.

핍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 끝을 넘어 가면서 새로운 세계를 겪게 될 것이다. “모든 무신론의 색깔이 무색” (colorless, all color of atheism)(228)인 것처럼 그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절대자의 존재를 느끼는 것 같다.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와 가타리(Félix Guattari, 1930-1992)는 공저 『천 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조현병』(*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2005)에서 “모비 디크이 더 이상 개체도 아니고 생물의 한 부류도 아닌 것으로서, 경계선” (Moby Dick is neither an individual nor a genus, he is the borderline)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쪽도 저쪽도 아닌 것이, 변칙적인 것이다” (all that counts is the borderline, the anomalous)(245)라고 말한다. 들뢰즈는 나아가서 모비 디크은 포장 꾸러미를 구분시키는 “흰색 벽” (White Wall)이며 또한 악마적인 “결연의 항” (Term of the Alliance)임과 동시에, 끄찍한 “낚시줄” (Fishing Line)이 되어 선장을 끌고 벽을 넘어 텅 빈 공간/공허감 속으로 데리고 간다(249-50)고 말한다. 들뢰즈는 모비 디크을 작품명으로서, 그리고 생명체인 흰색 고래로 나누고 있다. 『모비 디크』에 스며있는 멜빌이 추구하는 종교관은 부패한 성직자들만의 종교가 아닌 순수한 차원의 종교임을 볼 수 있다. 흰색의 모비 디크은 멜빌이 추구하는 선을 상징하는 것이고 선장은 악마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들뢰즈는 『천 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조현병』을 통해 멜빌이 세상에서 악은 사라지기를 바라는 염원을 정확히 집어냈다. 실성한 핍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핍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인간 세계 저 너머를 경험한다. 우리로서는 실성한 핍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분석의 대상으로 여기는 대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핍이 물에서 지냈던 경제적 가치는 승선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비록 노예가 아니라고 하지만, 노예제는 핍의 숙명적 고독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또

한 보트에서 얼떨결에 물에 빠진 후 실성한 것이 핍의 운명이다. 물에 빠지기 전 핍의 마음속에 머물던 소외와 외로움에 이어, ‘실성한 아이’라는 사회적 관점 속에 이해받지 못하는 또 다른 고독이 찾아온 것이다.

또한 물에 빠져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던, 혹은 도움을 거의 포기하고 있던 동안은 핍이 ‘홀로임’이라는 고독의 또 다른 차원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핍이 실성해버린 것은 ‘홀로’ 있는 순간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 존재의 본질인 고독함은 어린 핍으로서는 감당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차원의 것으로 멜빌은 화자 이스마엘의 입을 빌려 핍이 신의 보물인 지혜를 얻었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동료 선원들에게는 단지 ‘실성한 아이’라는 이름만이 추가된 것이다.

지금까지 『모비 딕』에 나타난 핍의 숙명적 고독을 알아보기 위하여 간략히나마 피쿼드 호를 함께 탄 동료들의 고독한 모습과 실성한 핍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피쿼드 호의 인물들은 다양한 환경과 동기에서 연유한 고독을 지니고 있다. 핍은 인종차별이라는 흑인으로서의 사회적 소외와 더불어 경제적 이유에서 선원들에게 버림받음으로써 ‘실성’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본선에 의하여 구조된 핍은 결국 실성한 아이로 기억되지만 인종차별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약자의 전형이다. 결국 핍의 숙명적 고독을 상쇄하는 실성을 신이 선물함으로써, 그의 고독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게 된다.

#### 4. 「필경사 바틀비」에 나타난 바틀비의 사회적 소외와 고독

1851년 『모비 딕』에 이어 1852년 『피에르』를 출판했지만, 작품이 연이어 실패함에 따라 멜빌의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못했다(Coxe 32). 멜빌은 돈에 쪼들린 나머지 잡지에 실을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James 105), 주인공과 세상과의 부조화를 다룬 작품을 계속 저술했고, 장편의 실패 후 좀 더 쉽고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춘 짧은 단편 위주로 전환한 가운데 「필경사 바틀비」 등이 수록된 『피아자 이야기들』을 1856년에 출간했다. 멜빌은 「필경사 바틀비」의 바틀비를 통하여 자신을 대변함과 동시에 물질만능 자본주의에서 파생된 계급사회, 빈부 격차, 그리고 불평등에 맞서 고독으로 저항한다.

「필경사 바틀비」는 한때 그를 고용했던 변호사를 화자로 내세워 바틀비에 대한 회상의 형식을 취한다. 변호사는 규칙대로 생활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신앙심이 깊다. 그는 승자의 위치에서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이다. 반면 바틀비는 물질만능주의와 자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 등을 돌리고 고독을 선택한다. 바틀비는 때로는 침묵으로, 더 많은 경우에 “저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I would prefer not to)(13, 14, 15, 18, 19, 20, 25, 26, 27, 33, 38, 40, 41, 44)라는 반복된 표현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거부함으로써 필경사로서의 일자리를 잃게 되고, 변호사로부터 버림을 받으며 결국 부랑자로서 교도소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와터즈는 바틀비를 에머슨이 찬미하는 “군중 속에서도 고독이라는 자립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사람”(he who in the midst of the crowd keeps with perfect sweetness the independence of solitude)(“Self-Reliance” 150)과는 정반대의 인물로 보고, 멜빌 자신이 창조해 낸 외톨이 중에서도 가장 동정심을 느끼는 인물이라고 설명한다(1146). 바틀비는 고독을 원하고 선택한 듯이 보이지만, 그의 여린 성격으로 볼 때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동체와 어울

리지 않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찾을 능력은 없어 보인다. 침묵과 짧은 대답으로 자신을 대변하는 바틀비는 자신의 의지가 끝내 관철되지 않음을 알고, 자발적 죽음을 통하여 비정한 월가를 고발하고 자본주의의 부조리를 폭로한다. 바틀비는 외로움이 겹쳐진 사회적 소외와 소통의 단절에 서 있다.

와터즈는 바틀비를 자발적 외톨이로 분류하지만(1144), 필자는 바틀비는 고독을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라고 생각한다. 이전에 근무했던 배달 불가 우편물 취급소에서의 경험은 바틀비를 뺏속까지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바틀비는 변호사나 동료에 의해 의도적으로 소외된다. 고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바틀비가 선택한 출구일 뿐이다. 변호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홀로’ 있기를 선택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사회적 소외에 따른 외로움을 상쇄하려 한 듯이 보인다. 그 고독의 선택이 죽음의 가능성까지 내포한다고 하더라도 바틀비는 자신을 소외와 외로움으로 이끄는 사회에서 더 이상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다.

본 장에서는 바틀비의 고독이 인간을 우위에 두는 전통적 가치가 물질만능을 앞세우는 경제적 논리가 주도하는 이념으로 대체되는 교차점에 있으며, 사회로부터 부재한 존재로 낙인찍히고 이러한 부재의 존재가 소외로 나타남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바틀비가 처한 삭막한 도시의 풍경과 고독을 연관지은 다음, 주변 인물들과의 소통의 부재에서 느끼는 바틀비의 절망을 들여다 볼 것이다.

#### 4.1 생명이 없는 고독한 풍경

「필경사 바틀비」에는 쾌활하거나 활기찬 생명이 없는 풍경과 죽음의 이미지가 가득하다. 변호사-화자는 독자에게 고층 사무실 건물들이 즐비한 월가의 건축물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자신의 사무실과 이웃한 건물들의 외관은 수직의 사각형 빌딩이다.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과 주변의 건물들의 꼭대기는 모두 하늘을 찌르고 있다. 화자는 자신의 사무실과 그 주변을 활기 넘치는 공간과는 거리가 먼 삭막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자신에 찬 변호사의 진술이 역설적으로 들리는 것은 가장 풍족하고 안온한 삶을 지향하는

변호사가 사무실로 상징되는 도시의 삭막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점이다. 특히 화자는 이러한 건물들 사이의 텅 빈 공간은 마치 “거대한 사각형의 수조”(a huge square cistern)(5)처럼 생겼다고 말한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조는 물을 담는 구조물이다. 화자가 생각하는 공간에 비록 물이 담겨져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수조’의 이미지는 『모비 딕』의 공간인 바다와 대조를 이룬다. 핼에게는 두려움을 자아내는 공간이 바다라고 한다면, 수조는 인간이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구조물이다. 즉 통제 불능의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통제 가능한 인공물인 까닭에, 변호사에게는 익숙하고 안전한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위험이 내재된 바다는 생명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모비 딕뿐 아니라 수많은 바다 생물의 보금자리인 바다와 대비되는 수조와 같은 건물 사이의 텅 빈 공간은 삭막하기 이를 데 없다. 건물들 사이의 사각형 수조와 같은 공간에는 물 대신 부패된 공기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떠돈다.

변호사가 아무런 감정 없이 전달하는 사무실과 주변 풍경의 묘사는 그의 내면도 마찬가지로 삭막할 것이라는 느낌까지 전달한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의 유일한 창문이 “세월의 흐름과 영원한 그늘로 검게 변색된 높은 벽돌벽”(lofty brick wall, black by age and everlasting shade)(5)과 마주하고 있으며, 사무실의 벽을 포함하여 창문 너머에 보이는 것 역시 “벽”(wall)(5)이라고 미리 췌기를 박듯이 말한다. 창문이 없는 벽은 “죽음의 벽”(dead wall)(24), 즉 ‘출구 없는 벽’으로 표현된다. 변호사에게 고용된 바틀비는 필경사로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변호사를 만족시키지만 곧 바틀비가 일하는 방식은 달라진다. 그는 칸막이 뒤에서 일하면서 멍한 상태로 유리창 너머의 벽을 바라본다. 이 벽은 현실의 물리적인 벽과 화자가 생각하는 상상 속의 벽 둘 다를 포함한다. 아마 바틀비는 자신을 타인에게로 연결해 줄 수 있는 통로의 부재를 절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의 꽃’이 주식이라면 그 꽃은 월가라는 자본주의의 나무로부터 자라난다. 미국이 신생 독립국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뉴욕은 미국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월가는 옆 건물 벽과의 간격이 10피트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밀집된 지역으로 묘사되며.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햇볕 대신 그늘 뿐이다. 록펠러(John D. Rockefeller, 1839-1937)가 유전을 개발한 1859년보다 이전이라 고래 기름 등을 태운 연기로 그을려진 빌딩의 각 벽면은 햇빛이 비치지 않는 음지이기도 하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은 건물은 원거리에서 볼 때와는 달리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인간을 부속품으로 전락시키고 이익만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실체를 대변한다. 화자는 자신의 사무실을 포함하여 주변을 역설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미화시킴으로써 앞으로 바틀비와의 만남에서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예상하게 만든다.

도시는 벽이나 담, 또는 울타리로 서로 이어져 있거나 분리되어 있다. 과거에는 지역 사회가 독립된 생활을 한 관계로, 소도시들은 병사나 경비병이 지키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경우가 많았다. 도시 공간에서의 벽의 기능을 연구한 폰타나-지우스티(Fontana-Giusti)는 고대 도시 건축물을 설명하면서 주민들의 거주 공간을 성벽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성벽의 안과 밖을 안전과 불안 또는 보호와 공포의 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성벽의 안쪽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는 성 안은 “오목하고, 꼭 껴안은” (concave, hugging) 공간으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장소이며, 성벽의 바깥에 거주하거나 추방된 사람에게는 “볼록한” (convex) 외부의 공간으로 언제나 불안하고 공포의 대상이었다(312). 이때의 성벽은, 이방인의 불법 침략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목숨을 담보로 위태로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성외 거주인과 일신상의 편안함과 걱정 없는 생활을 바라는 성내 거주인을 구분한다.

그러나 모더니즘은 “침투할 수 없는 벽들” (impenetrable walls)(Fontana-Giusti 333)과 투쟁하며, 유리 벽면의 사용을 통해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폰타나-지우스티의 견해이다(335). 그러나 근대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바틀비가 일하는 사무실 건물과 맞은편의 고층 빌딩, 좌측 편 건물, 그리고 우측 편 건물은 서로 마주 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폐쇄성으로 인해 ‘출구 없는 벽’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삭막한 현대인의 소통 불가능성을 상징한다.

지젝(Slavoj Žižek, 1949- )은 멜빌이 그려낸 월가의 풍경을 두고 우리에게

“당신은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위협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생태계를 위해 뭔가를 하시오!” (Are you aware how our environment is endangered! Do something for ecology!)라고 다그칠 정도이다(393). 지젝은 바틀비의 사무실 뿐 아니라 월가조차 생명력을 상실한 장소라고 일침을 놓는다. 산업이 발달하고 규모의 경제가 커질수록 환경 훼손과 생태파괴 또한 비례한다. 이 두 가지의 주체는 바로 인간이며, 이런 파괴적 행위로 인해 경제 활동을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 눈앞의 이익은 돌아서서 우리의 영혼을 말살시키고 터전을 훼손시킨다. 하늘을 찌를 듯한 뉴욕의 마천루가 상징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는 사람들의 심리와 다를 바 없다. 경제 논리만 추종하는 것이나 탑을 쌓아 하늘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결국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고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 『모비 딕』에서도 에이헵이 보여주는 자연관은 생명과 영혼이 없는 하나의 기계 내지 물체로 자연을 간주하는 “기계론적 자연관” (Mechanistic nature view)에 다름 아니다(Osherenko 235). 에이헵과 유사한 자연관을 지닌 변호사는 생명 없는 도시 공간에서 전혀 불편해하지 않지만, 바틀비는 그렇지 않다. 생명 없는 공간에서 그는 저항하기 시작한다.

바틀비가 수감된 교도소는 높고 두꺼운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툼즈” (Tombs), 즉 무덤이라고 불린다(8). 담장이나 벽과 마찬가지로 무덤은 단절 또는 죽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이야기의 서두에서 월가의 풍경을 묘사했듯이, 교도소의 건물과 뜰의 풍경을 설명한다. 월가 건물의 틈새가 부패한 구조라면, 교도소의 높은 담장은 생명을 짓누르는 압박과 통제의 공간으로 “침투할 수 없는 벽들” (impenetrable walls)(Fontana-Giusti 333)의 변형이다. 변호사가 바라본 교도소 마당은 벽과 풀이라는 두 개의 이미지가 병치된다. 인간미가 전혀 없이 죽음을 향한 얼굴 없는 제단인 피라미드가 하나이고, 외견상 무질서하고 예측불가에 막을 수도 없이 틈새에서 자라는 풀이 또 다른 이미지이다. 일반 재소자들에게는 출입 금지 구역인 마당을 둘러싼 피라미드를 닮은 이집트식 석조 건물의 벽은 소리조차 차단하는 죽음의 상징이다(45).

그러나 사방 벽 안쪽에 감금된 그 중간 뜰에는 부드러운 잔디가 발밑

에 돌아나 있었다. 그곳은 불멸의 피라미드의 심장부처럼 생각되기도 했으며, 그곳의, 어떤 신비한 마법에 의해 갈라진 틈새에는 새들이 떨어뜨리고 간 풀씨가 짝으로 돌아나 있었다.

But a soft imprisoned turf grew under foot. The heart of the eternal pyramids, it seemed, wherein, by some strange magic, through the clefts, grass-seed, dropped by birds, had sprung. (45)

무생물인 돌 제단과 생물인 풀은 그 생명력과 외견상 너무나 대조적이다. 화자가 표현하는 “감금된 부드러운 잔디” (a soft imprisoned turf)(45)는 다름 아닌 바틀비를 가리킨다. 바틀비는 자본이 판을 치고, 경제 이익이 우선시 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한 곳에서 인간으로 남고 싶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돌로 된 감옥에 가둔 것이다. 화자는 석조물로 된 바닥 위에서 자라는 풀의 의미를 바틀비와 연관시켜 파악하지 못하며, 그 역할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진다. 독자는 바틀비의 자발적 죽음과 화자의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위선 사이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바틀비가 머무르는 거의 모든 장소가 생명력을 상실한 것처럼, 그가 하는 일 역시 생명이 숨 쉬는 듯한 일이 아니며, 인간 본연의 정서가 스며 있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 이처럼 생명이 없는 삭막한 환경과 바틀비의 고독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동안 바틀비는 정부의 인사 방침에 따라 실직한 이래, 사회에서 소외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부재를 안고 있다. 그리하여 바틀비는 이런 생활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어쩌면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길 기다리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가 택하는 고독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일 수 있다. 공동체에의 순응이 그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삶을 의미한다면, 바틀비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소외와 고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 4.2 소통의 단절과 바틀비의 외로움

산업이 발달하고 사무 환경이 자동화될수록 인간의 육체적 노동력의 가치는

줄어든다. 특히 바틀비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기 전에 워싱턴 소재의 “배달 불가 우편물 취급소 하급 직원”(a subordinate clerk in the Dead Letter Office)(46)으로 일했던 점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효율성 제고라는 기치 아래 공장자동화 내지 사무자동화의 일환으로 생겨나는 감원 사태는 160년이 지난 현대에 와서도 갈수록 그 정도는 심해지고 있다. 수취인 불명의 편지를 분류하고, 이들 편지 가운데 일정 기한이 경과한 편지를 소각시키는 업무를 수행해 온 바틀비는 조직의 운영 방침 변경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해고당했다.

바틀비가 배달 불가 우편물 취급소에서 하던 일은 편지의 수령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인해 배달할 수 없는 편지를 불에 던져 태우는 것이다. 그의 업무는 통신 기술과 건축 공법의 발달 때문에 감원이 불가피하다. 오고가는 편지가 줄어드는 만큼 이를 처리하는 공간도 축소된다. 바틀비 또한 통신 자동화 시스템을 비껴나가지 못한다. 그가 자리한 “공문서 보관소의 축소”(the decline of the chancery)(Wan 201) 또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마찬가지다. 이곳에서 하는 일의 역설적인 점은 편지의 수령인이 벌써 사망하였지만 실제로 편지는 계속 배달중이라는 것이다. 로렌즈(Johnny Lorenz)는, ‘배달 불가 우편물 취급소’가 “종이와 살, 그리고 텍스트 본문과 신체 사이의 환유 관계를 생각나게 하는 매우 효과적인 비유”(powerful trope with which to consider the metonymic relation between paper and flesh, between textual and physical bodies)라고 한다(76). 그에게 있어서 ‘배달 불가 우편물 취급소’와 ‘더 이상 주인을 찾아갈 수 없는 편지’와의 관계는, 텍스트 본문을 종이라고 부르거나 사람의 신체를 몸이라고 따로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로렌즈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일자리를 잃는 바틀비 동료들의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실직의 위기에 처한 사람의 신체와 사물인 죽은 편지와와의 관계를 자칭 효과적인 비유로 그치고 만다. 고독에 잠기는 것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아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사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다운 고독은, 일개 사물에 지나지 않는 편지와 인격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보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지 않는다.

편지 봉투에 적힌 수령인들이 받아야 할 편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화자가 짐작하듯이 바틀비가 절망을 경험하기에 알맞은 상황이다. 편지를 쓴 이가 전하고 싶었던 간절한 메시지는 사랑일 수도 있고 경제적 도움일 수도 있으나, 이 메시지를 가장 필요로 했던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 즉 도달되지 않음으로써 편지는 그 생명력을 잃고 죽은 편지가 된다. 수취인의 죽음이 전제된 편지의 운명은 죽음이다. 바틀비는 전달되지 않거나, 떠돌아다니거나, 또는 자신처럼 갈 곳이 없는 서류나 편지를 폐기하는 일에서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하다. ‘선천적으로, 그리고 불운으로 무력한 절망 상태에 빠지기 쉬운’ 바틀비가 배달 불가 우편물 취급소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것은 소통의 단절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있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바틀비는 변호사 사무실에 오기 전부터 이미 이런 소통의 단절을 겪으면서 인간 사이의 벽에 대한 고민을 이어왔었다고 하겠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바틀비는 자신을 수취인을 찾을 수 없는 배달 불가 우편물로 여길 법하다.

멜빌은 그의 소설 「엔칸타다스」를 마무리하는 열 번째 스케치, “배링턴 섬과 해적들”(Barrington Isle and the Buccaneers)에서 갈라파고스 제도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무덤과 십자가, 그리고 해안가에 위치한 기약 없는 편지를 주고받는 우체국들을 묘사한다. 무덤의 주인은 “탈주자들, 조난자들, 그리고 외톨이들”(runaways, castaways, and solitaries)(“The Encantadas” 133)로서 자신의 고향이나 고국을 떠나 엔칸타다스를 찾아온 사람들일 것이다. 블루멘탈은 우체국과 묘비가 멜빌이 “마법에 걸린 제도”(The Enchanted Islands)라는 의미의 엔칸타다스 제도와 작별하는 이미지라고 말한다(223). 자의든 타의든 고향을 등지고 고독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묘비는 그들이 존재했음을 알리는 마지막 표식이다. 한편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용했을 우체국에서 그들이 보낸 편지들은 목적지를 잃고 수취인 불명이 되어 배달 불가 우편물 취급소에서 바틀비가 폐기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바틀비의 첫 방문을 받은 변호사는 그를 고용하기로 결심하고 책걸상과 개인 비품을 마련해 주지만 이 행동이 그의 순전한 호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바

틀비가 사무실의 일원으로 수익을 내는데 기여할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필경사 바틀비」에는 “월가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화자인 변호사는 월가에 사무실을 내고 민형사상의 소송에 관여하기보다는 “오직 금융 문제들만 처리”(only deals with financial issues)하며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다 (Ruvolo 227). 그는 스스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바틀비 또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보다 주어진 업무만 수행해 줄 것을 바라는 인물이다.

나는 배심원 앞에 서서 말하거나 방청객의 갈채를 이끌어 내려는 짓은 절대 하지 않는 별다른 야심이 없는 변호사로, 아늑한 곳에서 평온함을 즐기면서 차분하게 부자들의 채권, 저당권, 부동산 권리증을 처리하는 편한 일만 하고 있었다.

I am one of those unambitious lawyers who never addresses a jury, or in any way draws down public applause; but in the cool tranquility of a snug retreat, do a snug business among rich men's bonds and mortgages and title-deeds. (4)

변호사의 수익이 전통적인 소송이나 법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월가의 금융업에서 기원한다는 것은 이미 기계를 통한 상품의 생산과 판매 단계를 넘어서 산업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월가가 그 선봉에서 있음을 보여 준다.

바틀비의 업무는 그저 단조로운 필사 작업뿐이다. 아마도 변호사의 주업무인 ‘부자들의 채권, 저당권, 부동산 권리증’을 옮겨 적거나 하는 일일 것이다. 글자를 베껴 쓰는 일에는 어떤 주체적이거나 창조적 행위가 끼어들 틈이 없다. 생명력 없는 월가의 사무실이라는 배경과 마찬가지로 바틀비가 하는 업무 또한 생명력이나 창조와는 거리가 멀다. 아감벤(Georgio Agamben)은 변호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베껴 쓰기를 중단한 바틀비가 모든 창조의 원천인 무(無)를 향한다고 한다. 글짓기를 하지 않는 필경사는 “완벽한 잠재성”(perfect

potentiality)만 갖고 있을 뿐으로, 여기에서 나오게 될 온갖 창조의 가능성을 거부하는 바틀비는 자기 자신의 백지가 된 것이다(Agamben 246-47). 변호사의 이익 추구를 돕는 창조 행위, 필사는 바틀비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된다. 화자의 지시에 바틀비의 응답은 거절로 되돌아온다. 바틀비는 주어진 업무 이외의 다른 일을 지시받으면 ‘나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를 선호하며 거부 의사를 20여 차례나 표명한다. 바틀비의 거절행위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결단력이 있는 행위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적극적인 태도”(active form of doing nothing)이다(Flemming 158). 하지만 바틀비는 “나는 하지 않겠다”는 완전부정의 말은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독자는 “부정적 판단과 무한한 판단에 대한 칸트의 구분”(Kant’s distinction between negative and infinitive judgment)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Žižek 393). 대개의 경우에서 질문이나 사안 따위에서 답을 찾아보면 긍정과 부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과거의 진실이 현재에는 부정으로 밝혀진단든지 그 반대의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진리 내지 진실은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것이지만 답이 뒤바뀌는 이유는 관점의 시기나 관찰자의 개인차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지젝은 ‘칸트의 비판’을 빌려 선불리 긍정/부정의 판단을 내리는 것을 경계한다.

변호사가 바틀비를 대하는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다. 변호사가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바틀비에게 일자리를 주면서도 한편으로 그를 주시하고 경원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의 업무 처리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만, 바틀비를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듯한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카히르는 바틀비가 “신비스러운 낯선 사람”(the Mysterious Stranger)로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지만 이들을 계속 성가시게 하는(annoy)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76). “이런 사람들이 자아내는 순간적인 짜증이나 성가심”(momentary annoyances they provoke)을 넘어서서”(Cahir 76) 변호사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바틀비는 뭔가를 깨닫게 한다. 달리 말하자면, 바틀비 같은 유형의 사람은 변호사에게 자신의 생활방식을 비롯한 모든 것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이다. 월가에 안주하면서 부를 누리고 있는 변호사에게 바틀비는 안락함을 비집고 들어오는 불편한 존재로 카히르의 말을 빌리자면 다음과 같은

진실을 전하는 자이다.

가장 성실하고 용감한 사랑의 표현이 배달 불가 우편물 취급소, 우리가 애써서 쓰는 편지와 시를 거의 누구도 읽으려고 하지 않으며, 이해하는 사람은 더 적은 세상에서 끝난다.

We live in a world where our sincerest and bravest expressions of love end up in a Dead Letter Office, a world where few bother to read—and even fewer understand—the letters and the poems we struggle to write.  
(77)

들뢰즈는 『에세이 비평과 분석』(*Essays Critical and Clinical*, 1998)에서 「필경사 바틀비」를 “작가를 위한 메타포도 아니고 그 밖의 다른 것의 상징도 아니고”(neither for the writer nor the symbol of anything whatsoever) “지독하게 웃기는 글”(violently comical text)이라고 간주한다(68). 바틀비는 출근 첫날부터 변호사가 혼자 쓰던 사무 공간에 자리를 배정받는 정황을 두고 들뢰즈는 바틀비와 변호사와의 관계를 “별로 말이 없는 여동생, 모르거나 잊혀진”(silent sister, unknown or forgotten) 경우라 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것(74)으로 둘 사이를 거의 “동성애 관계”(homosexual relation)라고 보았다(75). 변호사 사무실의 구성원 모두가 남자로, 여직원이 없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직 후 새로 얻은 직장에서 충실하게 일처리를 해 온 바틀비가 일관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주위 동료들에게 말하기 곤란한 어떤 이유가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 들뢰즈의 생각이다.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이 발생하기 전의 시절에 일어난 일로서, 아마도 강요된 성적 수치심을 느낀 바틀비와는 달리 이기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변호사는 자신의 동성애가 소문날까 봐 노심초사하던 중 교도소에서 곡기를 끊고 생을 마감한 그의 돌발 행동에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른다. 결국 바틀비의 “악명 높은 거절”(infamous refusal)(Gaboury 148)은 둘 사이의 관계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라는 점과 성적 취향 등을 고려해 볼 때 “말할 수 없거나 막을 수 없는”(the

Unspeakable or the Unstoppable)” (Deleuze 70) 상황이라는 것이다.

변호사는 바틀비가 필사 작업을 한 후에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교정을 보라고 지시한다. 그렇지만 이때 바틀비의 응답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이다. 그의 거부는 고집스럽게 계속되자, 변호사는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는 바틀비를 해고시키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다. 결국 변호사가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린 후 빈 사무실에서 지내던 바틀비는 새로 이사 온 사무실 주인으로부터 부랑자로 고발을 당해 교도소로 옮겨진다. 바틀비를 고발한 사람은 이름이 없고, 소속이나 지위도 드러나지 않는다. 화자와 또 다른 주인은 바틀비를 경제적 이익의 관점과 현행 법률적 지시에만 의존하여 마치 물건을 거래하듯이 사무적으로 처리하고 만다. 이후 바틀비를 면회한 화자는 간수에게 부탁하여 더 나은 식사를 제공하고자 한다. 하지만 바틀비를 위한 화자의 선행은 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는 바틀비 몰래 사무실을 옮긴 후 처음으로 그의 소식을 듣지만, 그 소식은 교도소로부터 연락 받은 사망 소식일지도 모르며, 이후 달려간 그는 바틀비의 죽음을 확인 후 끝까지 이기적인 행동의 일환으로 교도소 측에 식사 제공을 부탁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 화자가 교도소를 방문한 당일 바틀비가 굶어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화자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한편 카히르는 바틀비와 변호사의 관계에서 호손과 멜빌의 관계를 읽어내었다. 『모비 딕』을 헌정할 정도로 존경했던 호손과의 친교는 1851년 11월에 갑자기 호손이 버크셔(the Berkshires)를 떠남으로서 소원해졌다. 호손이 자신의 생각을 전적으로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던 멜빌을 “조심스러운 성격의 호손”(the very cautious Mr. Hawthorne)(Cahir 17)이 부담스러워 했다는 것이다. 관계가 소원해진 뒤 출간된 『피에르』는 『모비 딕』의 판매 부진에 대한 실망과 호손과의 결별(failed fellowship)(Cahir 16)로 인한 좌절과 분노를 담고 있다고 카히르는 주장한다. 또한 카히르는 “푸르스름한 빛이 돌 만큼 말끔하고, 딱한 느낌이 들 만큼 예의 바르고, 누구도 어떻게 해 줄 수 없을 만큼 쓸쓸해 보이는”(pallidly neat, pitifully respectable, incurably forlorn)(“Bartleby” 11) 바틀비의 거둬지는 거절은 멜빌의 과감하고 적극적인인

우정의 표현을 감당해낼 수 없었던 호손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멜빌의 호손에 대해 감정이나 호손의 멜빌에 대한 감정은 “결코 풀리지 않는 모호함”(an ambiguity never to be solved)(Cahir 17)이 그 본질이라고 하는 카히르는 “그 감정의 기원이 에로스가 아니라 예술이었다”(the origin of the feeling, [...] was art, not eros)(재인용 Cahir 17)는 래스킨(David Laskin)의 주장을 가져옴으로써 호손과 멜빌의 관계를 예술적인 것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어쨌든 변호사-화자와 바틀비의 관계와 바틀비의 거절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변호사는 좀 더 근엄한 상명하복의 사무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키가 큰 초록색 칸막이 커튼을 추가로 설치한다. 변호사는 바틀비와 함께 같은 공간을 사용하지만 칸막이를 통해 서로간의 관계는 주종의 상하 관계로 정의되고 벽이 생긴다. 서로 떨어져 일을 함으로써 언어불통의 벽을 만든다. 동일 공간을 사용하면서 화자는 바틀비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방편으로 칸막이 커튼을 세우지만, 바틀비는 화자의 의지대로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다.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바틀비에 대하여 변호사는 자신의 관점에서는 이해불가함을 깨닫는다. 표면상 화자는 하급자들에게 일방통행식의 명령체계를 고수하고, 사무실에서 바틀비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가장 신참인 바틀비는 사무실 분위기 파악에서 타직원들보다 탁월하다. 기존 선배 직원들은 자신들의 근무 환경이나 근무 조건에서 이미 타성에 젖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즉, 바틀비는 이들 선배들은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자발적으로 저항하며, 선배 직원들과 일말의 협의도 없이 실행에 옮긴 것이다.

공동체를 가로막거나 분리시키는 물리적인 벽 외에 인간 사이에도 보이지 않은 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벽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태생적이거나 후천적 원인에 의한 고독에서 비롯되며, 바틀비는 배달 불가 우편물 취급소에서 근무한 이후 자신의 치유될 수 없는 고독에 절망감을 느끼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에 대해 나름의 저항을 하기 시작한다. 스템펠과 스틸리언스(Stempel and Stillians)는 멜빌이 「필경사 바틀비」를 쓸 당시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를 요약본으로 접했을 가능성을 들어(269), 바틀비를 “부패한 세상이 무덤에서

절정에 이르는 쇼펜하우어와 같은 사람”(Schopenhauerian saint in a depraved world reaches its climax in the Tombs)(280)으로 보고 있다. 쇼펜하우어와 석가 모니는 고통의 본질을 직시했다. 둘은 인간의 삶이 생로병사에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특히 쇼펜하우어는 삶의 철학적 본질은 법칙이나 이성 따르지 않고 맹목적인 욕망에 의한 의지로, 이 욕망 때문에 삶은 괴로운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필자는 바틀비가 염세주의자가 아니고 자기의 저항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고립과 죽음을 택한다고 보았다. 바틀비는 합리적 판단이나 이성적 분석보다는 맹목적인 욕망을 앞세운 의지에 사로잡혀 묵언과 침묵, 단식으로 일관한 사람이다.

### 4.3 사회적 부재와 소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본명을 알 수 없다. 바틀비가 고용되었을 때 이미 세 명의 직원들은 별명으로 불린다. 변호사는 기존의 고용인들에게 터키, 니퍼스(Nippers), 그리고 진저 너트(Ginger Nut)와 같이 별명을 사용하지만 바틀비에게는 고유명사로 된 그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Krips 310). 터키는 변호사의 나이와 비슷한 예순 살로 “쉽게 흥분하고 허둥댔다가 들떠서 분별없는 짓을 저지르는 식의 이상한”(strange, inflamed, flurried, flighty recklessness) 행동을 한다(6). 니퍼스는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사무실의 책상을 없애 버리려고만 하는 “병적인 야심”(diseased ambition)을 갖고 있는 청년이고(8), 진저 너트는 터키와 니퍼스에게 과자와 사과를 사서 갖다 주는 등 사무실 내의 잔심부름을 하는 소년이다(6). 이처럼 인물들에게 별명을 붙이는 것은 의도적이다. 멜빌은 바틀비를 제외한 등장인물들에 대해 별명이나 익명으로 처리함으로써 과잉보다는 결핍이 내포된 단편소설을 써내면서 독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즉, 멜빌은 오직 바틀비에게만 본명을 허용하고, 다른 등장인물에게는 별명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의 혼돈을 불식시키는 것과 동시에 바틀비의 극적인 죽음을 강조하는 효과를 거둔다. 결국 「필경사 바틀비」는 바틀비가 죽음으로써 누구도 본명을 갖지 않는 작품으로 남는다. 『모비 딕』의 펄이나 이스마엘이 실제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것과는 달리 「필

경사 바틀비」의 화자는 자신과 주변인은 익명으로 남으면서 바틀비에게만 본명을 주었다.

하지만 바틀비에게도 많은 별칭이 따라붙는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붙여진 호칭으로 “법률서기”(law-copyist), “사무직원”(clerk), “강패”(mob), “필자”(writer), 그리고 “부랑자”(vagrant)(3, 19, 39, 42) 등이 있다. 사무실의 심부름꾼 진저 너트는 바틀비를 두고 “살짝 들었다”(a little lunny)(16)고 생각한다. 바틀비를 관찰하는 경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고독한 인물들 역시 본명이라 할 수 없는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들이다. 핍이나 이스마엘이나 자의든 타의든 본명을 드러내지 못하며, 유일하게 본명으로 지칭되는 바틀비 역시 별칭으로 그의 모습이 드러날 뿐이다.

무명의 화자와 별명으로 지칭되는 세 명의 직원들은 유령일지도 모른다. 시간이 흐를수록 바틀비의 이름만 기억 속에 남으니 말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본명을 밝힌 바틀비는 사무실에서 칸막이에 가려 보이지 않는 유령 취급을 받는다. 바틀비는 업무 중 화자의 부름이 있을 때 “진짜 유령처럼”(Like a very ghost)(19) 나타난다. 이때의 상황은 바틀비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며 오직 화자의 관점이다. 우리는 유령을 죽일 수 없으며 유령 또한 죽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화자는 결국 바틀비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화자는 “나는 더 이상 자네를 괴롭히지 않겠네. 자네는 여기 있는 이 해묵은 의자들만큼이나 해롭지 않고 조용한 존재지”(I shall persecute you no more; you are harmless and noiseless as any of these old chairs)(35)라고 말한다.

바틀비와 변호사 사이의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는다. 월가의 금융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안주하는 변호사와 그 그늘에서 일견 소극적으로 보이는 저항을 시도하는 바틀비와의 대비는 크다. 바틀비가 사무실이라는 작은 공동체로 상징되는 월가의 질서를 거부한 결과는 교도소행이다. 바틀비가 바라던 것은 교도소에서 식음을 거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시민 불복종의 행동”(an act of civil disobedience)(Lorenz 75)일지도 모른다. 결국 경제적 이익만 밝히는 자본주의 체제와 그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월가의 마천루 아래에서 바틀비와 같은 의지의 소유자는 죽음을 맞이한다. 그는 인간미 없고 이름

도 없는 변호사 겸 화자, 그리고 별명만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또 다른 서기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할 말을 잃는다.

멜빌은 바틀비 뿐만 아니라, 바틀비를 제외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허망한 자본주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바틀비는 이름을 가졌지만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름 없는 직원들끼리는 서로 업무상의 호흡을 맞추기도 한다. 이름 없는 화자는 양쪽 모두와 어울리는 듯하지만 실상은 그 역시 외로운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의 사무 공간은 무거운 종이에 짓눌리고 사방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단체나 개인 사무실의 법률적 정체성을 지닌 환경에서, 바틀비는 화자가 제시하는 것처럼 “선천적으로, 그리고 불운으로 무력한 절망 상태에 빠지기 쉬운 사람”(a man by nature and misfortune prone to a pallid hopelessness)(46)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알려주는 슬픈 산술에 압도당한 사람”(rather a man overwhelmed by the sad arithmetic that informs his life)(Lorenz 75)처럼 보인다. 바틀비는 배달 불가 우편물 취급소에서 이미 죽은 자들에게 속한 친밀한 표시나 사랑을 담은 편지를 파괴했다. 월가의 변호사 사무실로 이직한 이후 그의 주요 업무는 서류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비들 또는 도플갱어들”(zombies or doppelgangers)(Lorenz 76)로, 전자는 반쯤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고, 후자는 어떤 사람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다. 바틀비가 폐기한 우편물과는 달리, 법률 사무소에서 필사된 서류는 본래의 서류가 지닌 힘은 없지만, 변호사의 서명을 통해 생명력을 부여받고 진본의 행세를 하는 사본일 뿐이다. 이미 멜빌은 시뮬라시옹(simulation)의 시대를 예견했는지도 모른다.

「필경사 바틀비」는 19세기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월가에서 자비심도 신중함도 존재하지 않는 딜레마를 보여준다. 바틀비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중시하고, 그 경계에서 맴도는 인물이다. 멜빌은 철저히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바틀비의 삶을 통해 자본주의가 빚어낸 계급적 병폐와 모순된 분열을 파헤치고,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변호사를 고발한다. 나아가서 인간이 직면한 물리적·정신적 한계의 벽에 부딪히는 문제를 예리하게 묘사하면서 민주주의 평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을 폭로한다. 2007년 서브프

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를 거치면서 월가의 대규모 금융기관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손해를 보지 않으려하고 경영자들의 이익만을 챙기려 했던 도덕적 해이는 2011년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라는 시민의 저항운동을 불러일으켰다. 바틀비가 혼자서 거부하고 저항했던 19세기 미국의 금융자본주의의 폐해인 도덕성의 타락과 이익 추구는 21세기에 와서야 시민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바틀비는 타인을 향하여 지시하지 않는다. 만약 그를 실성한 자 또는 머리가 약간 돈 사람으로 부르게 된다면 그가 세상사 또는 주변 공동체와의 연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필경사 바틀비」의 바틀비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동떨어진 고독한 정신세계의 소유자로서, 이 고독은 사회적 고립과 소외라는 측면에서 자신만의 내면세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틀비 자신의 내면적 경험의 차원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한다.

「필경사 바틀비」는 내일의 희망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 바틀비는 “허물어진 사원의 마지막 기둥”(the last column of some ruined temple)(30)처럼 쓰러지고, 대서양 한복판을 떠다니는 “난파선의 한 조각”(A bit of wreck)(29)처럼 침몰한다. 사람의 죽음이나 삶을 놓고 어느 쪽이 더 좋거나 훌륭하다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 소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 바틀비여! 아, 인류여!”(Ah, Bartleby! Ah, humanity!)(46)라는 외침은 미국의 급속한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이면에 감춰진 인간 불평등과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고발이지만, 바틀비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변호사의 자기비판이기도 하다. 비록 매시는 이 외침에서 변호사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바틀비의 고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페이지?), 바틀비가 죽은 후에 변호사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삶의 치부를 낱알이 돌아보게 만드는 바틀비의 존재는 변호사에게는 불편함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변호사-화자를 통해 전해진 바틀비의 삶은 변호사가 살아온 삶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데 일조하면서, 더욱더 가려져버린다.

본 장에서는 바틀비의 사회적 소외와 그가 선택한 고독을 살펴보았다. 먼저 그가 일하는 월가의 사무실과 같은 건축물의 공간이 생명의 부재와 직원들 간

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 바틀비를 고립으로 몰아넣는 주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바틀비의 고독은 껍처럼 외적인 요인에 의해 강요되는 것만은 아니다. 물질을 숭배하고 인간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자본주의 이념 하에서 바틀비는 온몸을 바쳐 저지하려 한다. 바틀비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방식에 순응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고독한 존재가 된다. 바틀비가 원하는 삶을 공동체가 제공해주지 못할 때 그는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지도 않으며, 교도소에서도 음식을 거부한다. 죽음만이 그의 자유,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역설은 안타깝기만 하다. 갈수록 산업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성은 허물어져 가고, 인간을 경시하는 풍조는 커져만 간다. 결국 바틀비의 고독은 경제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소통이 단절된 공동체를 거부하고 저항의 수단으로 고독을 택하고 자살로 내몰리는 사람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바틀비는 스스로를 배달 불가 우편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에서 소통을 차단해버린다. 남겨진 변호사-화자에게는 결코 도착하지 않을 메시지를 보낸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독자에게 바틀비는 쉽게 해석되지 않는 인물로 남으면서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는 이유가 된다.

## 5. 『모비 딕』에 나타난 이스마엘의 불멸의 고독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고독을 숙명적으로 느낀다. 특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공동체는 그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마련이다. 핍이나 바틀비에게 피쿼드 호나 월가의 변호사 사무실은 공동체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는 고통스러운 정도의 외로움을 맛보게 하는 공간이다. 심지어 외톨이로 떨어져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고독을 선택함으로써 죽음의 순간을 홀로 맞이하는 경우를 바틀비에게서 보았다. 하지만 무리로부터 소외의 결과로 생겨난 고독과 결부된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고독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여러 종교의 구도자들은 공동체나 속세를 떠나 고독과 대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멜빌의 고독한 인물들 중에서 이스마엘은 구도자처럼 고독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선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동서양의 문학에서 여행이라는 주제는 오랜 관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인공은 여행을 하는 동안 지혜를 깨닫고 가르침을 얻는다. 아마 가장 유명한 예는 호메로스의 『오딧세이』(*Odyssey*, BC 700년경)일 것이다. 특별한/특정의 여정(journey)이나 모험에 초점을 맞춘 『오딧세이』나 『돈키호테』(*Don Quixote*, 1605)와는 달리, 멜빌의 『모비 딕』은 삶 자체가 여행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주인공 또는 여행자 내면의 세계가 외부와 조용한다. 『모비 딕』 출간 12년 전 20세의 멜빌이 평선원으로 세인트로렌스 호를 타고 뉴욕을 출항하여 리버풀까지 처음 항해한 이후 세상을 돌아다닌 경험은 그의 여러 소설에 담겨져 있으며, 『모비 딕』도 그 중의 하나이다. 『모비 딕』 출간 이후 멜빌은 1856년 11월 15일 영국에서 호손과의 만남을 포함하여 1856년부터 8개월에 걸친 ‘구세계’ (Old World) 여행의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sup>20)</sup>

20) 책명은 『유럽과 레반트 여행기 1856년 10월 11일-1857년 5월 6일』(*Journal of a Visit to*

본 장에서는 이스마엘이 경험하는 고독을 단계별로 나누어 고찰한다. 이스마엘은 배를 타기 전 물에서도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소외와 외로움을 경험하였고, 고깃배를 타고 항해 중에는 바다와 고래의 의미를 고독과 관련시켜 탐색한다. 그리고 조난을 당한 상태에서 고독, 즉 절대적으로 홀로 있는 경험을 맛당뜨린다. 그의 여정은 한편으로는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의 항해는 결국 고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여정이 된다. 이스마엘은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떨쳐내고, 고깃배 위에서 선원들과 함께 바다의 고독과 대적하고, 고래와의 싸움과 조난으로 상징되는 죽음의 고독을 사유한 끝에 극복해 내고 드디어 홀로 설 수 있게 된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그가 “고아”(663)라고 선언할 수 있는 배경은 혼자만 구조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부처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자의 고독이라 할 만하다. 이번 장에서는 물에서의 고독, 바다에서의 고독, 그리고 죽음의 고독과 차례로 대면하는 이스마엘의 여정을 따라갈 것이다. 앞서의 장에서 다룬 핍이나 바틀비와 마찬가지로 이스마엘도 경제적 약자로서 ‘외로움’을 경험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핍이나 바틀비에게 ‘외로움’을 넘어설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핍에게 주어진 ‘홀로인’ 상태는 그를 실성으로 이끌고, 바틀비는 ‘외로움’을 경험하지만 소통을 거부하며 ‘홀로’ 죽어간다. 그들에게 주어졌거나 그들이 선택했던 일견 부정적인 고독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신과의 대면을 위한 고독을 만나게 된다. 고독의 운명을 넘어 그를 무한으로 연결해주는 불멸의 고독과 만난다. 인간의 육체가 유한하다면, 고독은 인간의 영혼을 무한과 연결해주는 통로이다. 이스마엘은 피쿼드호의 유일한 생존자가 됨으로써 죽음을 넘어서게 되며, 고독함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이해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 그에게 고독은 ‘외로움’을 의

---

*Europe and the Levant October 11, 1856-May 6, 1857*, 1955)로 참고문헌에 명기한다. 멜빌은 1856년 10월 11일 뉴욕 항에서 글래스고(Glasgow) 호를 타고 출항한 이후 26일 글래스고에 기항, 11월 24일 스페인 지브롤터, 12월 12일 터키 콘스탄티노플, 12월 28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1857년 1월 7일 이스라엘 예루살렘, 1월 25일 레바논 베이루트, 2월 18일 이탈리아 나폴리, 3월 23일 플로렌스, 4월 17일 스위스 베른, 4월 20일 독일 하이델베르크, 4월 23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5월 4일 세익스피어의 출생지 스트래트퍼드 어폰 에이븐 등지를 여행한 후 1857년 5월 19일 뉴욕 항으로 귀환한다.

미하기도 하지만, 인간 존재 본연의 ‘홀로 있음’의 상태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다.

## 5.1 이스마엘의 명상적 고독

『모비 딕』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고래가 에이헵의 다리를 앗아가고 “그것이 수반하는 모든 것을 단순화하여, 복수극”(a revenge play, with all the simplifications that that entails)(Donoghue 163)이라는 평과 함께 에이헵을 소설의 중심인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소설의 모든 이야기를 끌어가는 화자인 이스마엘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한다. 브젠슨(Bezanson)은 “책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생생하고, 강력하며, 지배적인 이스마엘의 존재”(185)를 놓치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에이헵이 아닌 이스마엘을 소설의 중심적 존재로 보는 비평가들은 『모비 딕』에서 이스마엘이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와 형태의 글이 오늘날까지도 독자를 매혹하는 요소라고 주장한다(Bezanson 185). 물의 세상을 떠나 바다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고래를 새로운 류의 고독이라 한다면, 이 고래에 관하여 폭넓게, 깊이 사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마엘뿐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에이헵은 고래에 대해 미리 설정해 놓은 복수의 대상이라는 것 외에 ‘달리’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에이헵의 고정되고 편협한 사고방식과 대조를 이루는 이스마엘의 유연한 사고는 고래에 관한 모든 것을 사유하고자 하며 아울러 고래와의 조우를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만든다.

필자는 고독과의 조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성찰하고 성장하는 인물로 이스마엘을 꼽고자 한다. 핏이나 바틀비와 대조되는 이스마엘의 특징은 모두 ‘외로움’의 상태를 체험하지만, 유일하게 이스마엘만이 이를 극복함과 동시에 인간의 존재 조건인 ‘홀로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지만, 사라의 몸종인 하갈(Hagar)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라가 이삭을 낳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을 쫓겨났고 야훼의 도움으로 사막에서 살게 되었다(「창세기」 21:1-21). 멜빌이 소설의 화자를 이스마엘이라 한 것은 성경의 이스마엘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또는 추방당한 자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마엘은 미국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은 나머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돈도 별로 없고, “물에서는 딱히 흥미를 끄는 것이 없다”(nothing particular to interest me on shore)(3)라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스마엘은 미국의 경쟁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패배자의 편으로 밀려난 것임을 알 수 있다. 1837년 미국의 경제 공황이 시작되고 2년 후인 1839년부터 1844년 사이에 멜빌은 육지에서 직업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선과 고래배를 타면서 선원으로 일했다. 특히 고래배에서의 생활은 힘들었기 때문에 1841년 아쿠쉬넷 호에서 도망을 쳐서 남양의 원주민과 생활을 한 적도 있었다. 멜빌은 『모비 딕』의 서두에서 자신의 대변자인 이스마엘을 통해 경제적 궁핍과 그로 인한 사회로부터의 소외를 이야기하고 선원이 되었던 경험을 들려준다.

『모비 딕』의 첫째 장 「어렴풋이 보이는 것들」(“Loomings”)은 이스마엘이 바다로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스마엘의 고독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으로 읽힌다. 첫 단락에서 이스마엘은 절망과 분노에 빠져 있고, 타인에 대한 공격 충동 또는 자살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심기증에 짓눌린 나머지 거리로 뛰쳐나가 사람들의 모자를 보는 족족 후려쳐 날려 보내지 않으려면 대단한 자제심이 필요할 때, 그럴 때면 나는 되도록 빨리 바다로 나가야 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한다. 이것이 나에게서 권총과 총알 대신이다.

[E]specially whenever my hypos get such an upper hand of me, that it requires a strong moral principle to prevent me from deliberately stepping into the street, and methodically knocking people's hats off — then, I account it high time to get to sea as soon as I can. This is my substitute for pistol and ball. (3)

이스마엘이 보이는 증상은 단순히 11월의 날씨나 심리적 이유에서만은 아닐 것이다. 이스마엘의 이미지가 배를 타고 선원이 되기 전에 1837년의 경제 공황으로 실업상태에 있었던 작가 멜빌과 겹쳐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 장의 배경은 “맨해튼 섬의 섬과 같은 도시”(insular city of the Manhattoes)(3), 즉 뉴욕시

의 맨해튼으로 설정되어 있다. 자본주의에 의해 움직이며, 미국의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도시 뉴욕은 「필경사 바틀비」의 바틀비를 곤경에 빠트리게 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을 죽음의 유혹으로 몰아가는 곳이기도 하다. 뉴욕에서 태어난 멜빌은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가족을 이끌고 알바니로 이사하기 전인 열한 살 때까지 뉴욕에서 살았다. 이후에도 1891년 사망하기 전까지 20년간을 뉴욕에서 살았지만, 멜빌의 작품에서 뉴욕에 대한 기억은 언제나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과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Augst 59-60), 갓 스물의 청년 이스마엘이 느끼는 도시에서의 외로움은 작가 멜빌의 어린 시절에 갑자기 찾아온 가난의 기억과도 맞물려 있다. 뉴욕 시내를 방황하던 이스마엘은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주목한다.

그런데 여기 맨해튼 섬에 세워진 그대들의 도시는 인도의 섬들이 산호초에 둘러싸여 있듯이 띠처럼 이어진 부두에 둘러싸여 있고, 밀려오는 교역의 파도에 에워싸여 있다.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길들은 바닷가로 이어져 있다. 시내가 끝나는 곳에는 배터리<sup>21)</sup>가 있고, 그곳의 웅장한 방파제는 파도에 씻기며, 몇 시간 전만 해도 육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던 산들바람에 열기를 식힌다.

There now is your insular city of the Manhattoes, belted round by wharves as Indian isles by coral reefs—commerce surrounds it with her surf. Right and left, the streets take you waterward. Its extreme down-town is the Battery, where that noble mole is washed by waves, and cooled by breezes, which a few hours previous were out of sight of land. (3)

뉴욕의 맨해튼은 어느 길을 가든 바다로 통할 만큼 물이 혼한 곳이며, 가장자리는 부두로 둘러싸여 있다. 뉴 베드포드로, 낸터킷으로 가기 전 뉴욕에서 이미

---

21) Battery: ‘포대’의 의미이나, 여기서는 뉴욕 시 맨해튼 섬 남단의 지명이므로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는다.

이스마엘은 자신의 지향점이 바다라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물, 즉 바다를 쳐다보고 있다” (the crowds of water-gazers)(3)는 진술은 독자의 관심을 끄는데, 11월의 을씨년스러운 날씨 속에서 무리 지어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낭만적으로 느껴지지 않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취해 물에 빠진 나르시서스의 이야기처럼, 물은 분명히 사람들을 우울함과 죽음으로 이끄는 힘을 지닌 듯하다.

이스마엘에게 바다로 나가는 일은 절망의 회색빛이 도는 생을 마감하는 대신에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권총과 총알” (pistol and ball)(3), 즉 자살이나 살인 대신 바다를 선택하는 것이다. 고래배를 찾아 뉴 베드포드로 갔다가 낸터킷 섬에서 마침내 피쿼드 호를 타게 되지만 이스마엘의 여정의 시작은 맨해튼이며 더 정확하게는 맨해튼의 바닷가이다. 물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은 물과 물의 경계에 해당하는 곳이며 삶과 죽음의 경계일 수도 있다. 대도시의 가장자리, 즉 삶의 가장자리로 내몰린 이스마엘이 바다를 선택하는 것은 일견 죽음으로 뛰어드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바틀비의 뉴욕과 이스마엘의 뉴욕을 비교해보자.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월가의 건물들 사이의 텅 빈 공간이 “거대한 사각형의 수조” (a huge square cistern)(5)라고 묘사될 때 우리는 물이 말라버린 수조와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죽음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마엘의 뉴욕은 답답한 건물을 에워싼 벽보다는 개방된 공간과 물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다르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바틀비와는 다른 결말을 기대하게 만든다. 물과 물의 경계, 즉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이스마엘은 물로, 또 죽음의 공간으로 향하는 듯이 보이지만, 이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물 대신 물 혹은 바다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해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바다가 모든 생명의 고향인 것처럼, 이스마엘이 고래배로 향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유지를 위해, 즉 의식주를 제공해 줄 곳을 찾아 고래배로 향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지만, 바다 위의 고래배에서 그가 무엇을 더 찾아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 5.2 고랫배 선원 이스마엘의 운명적 고독

외로운 계곡의 물은 강을 따라 아래로 흐르고, 바다로 향한 물의 모습은 서로 만나기 위해 움직이는 것 같다. 곳곳의 물은 서로 합치는 것 같지만 함께 가지는 않는다. 이처럼, 사람들도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별적 존재이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시간은 생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물 가운데서도 바다야말로 절대적 고독의 공간이며,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공간이며 또한 신비로운 공간이다.

굳세고 건강한 정신에 굳세고 건강한 신체를 가진 젊은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바다에 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대가 난생처음 배를 타고 여행할 때, 당신이 탄 배가 이제 물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로 나왔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신비로운 전율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다를 신성하게 여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스 사람들이 바다의 신을 따로 두고, 그 신을 최고신 주피터의 형제 자리에 앉힌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들은 하나도 무의미하지 않다.

Why is almost every robust healthy boy with a robust healthy soul in him, at some time or other crazy to go to sea? Why upon your first voyage as a passenger, did you yourself feel such a mystical vibration, when first told that you and your ship were now out of sight of land? Why did the old Persians hold the sea holy? Why did the Greeks give it a separate deity, and own brother of Jove? Surely all this is not without meaning. (5)

이스마엘은 자신의 선택, 즉 물을 떠나 바다로 가겠다는 선택을 모든 건강한 젊은이들이 품은 소망이라고 정당화한다. 실제로는 경제적인 궁핍으로 바다로 내몰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의 설명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지녀왔던 바

다에의 동경의 실현이라고 포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비 딕』은 걸로는 흰 고래 모비 딕을 쫓아 바다를 떠도는 여정에 관한 내용이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물을 기반으로 한 이스마엘의 세계관의 변화과정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육지에서의 삶 대신 이스마엘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공간”(a space that is constantly moving)(Long 70)으로 이끌어진다. 단단하게 굳은 육지가 이미 죽은 장소라면 바다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공간이다. 신화학자이자 종교연구가인 조셉 캠벨(Joseph Campbell)은 영웅담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신화적 여행의 첫 번째 단계는 ‘모험에의 초대’로서 운명이 영웅을 소환하고 그의 영적인 무게 중심을 그가 속한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미지의 지역으로 옮겨놓음을 의미한다.

This first stage of the mythological journey—which we have designated the ‘call to adventure’—signifies that destiny has summoned the hero and transferred his spiritual center of gravity from within the pale of his society to a zone unknown. (53)

캠벨의 주장을 따른다면, 이스마엘은 육지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미지의 영역인 바다로 옮겨가고, 바다는 그를 성장시키는 기반이 된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고래배는 나의 예일 대학이며 하버드 대학”(a whaleship was my Yale College and my Harvard)(131)이라고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

고래배 선장 펠레그는 그동안 상선만을 타 본 이스마엘에게 고래배 피쿼드호를 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공포감을 심어준다. 펠레그는 상선 경력이 아무리 많은 선원이라도 고래를 잡는 뱃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놓는다. “그럼 왜 고래를 잡으러 가겠다는 건가? 자네를 배에 태우기 전에 그걸 먼저 알고 싶네”(But what takes thee a-whaling? I know that before I think of shipping ye)(85)라고 묻는 펠레그 선장의 말에 이스마엘은 “예, 고래잡이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세상을 보고 싶기도 하고요”(Well, sir, I want to see what whaling is. I want to see the world)(85)라고 대답한다. 피쿼드 호에서 이스마엘의 세계관은 차츰 육지에서 바다로 옮겨가기 시작하며, 바다를 통해 이스마엘은 그를 괴롭혀 온 삶에서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인 고독과 다시 직면한다. 한편 소로우는 그 자신이 1845년부터 숲 속으로 들어간 이유를 『월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나는 깊이 있는 삶을 살면서 삶의 모든 정수를 음미하고 싶었으며 삶이 아닌 것은 모두 때려 었을 정도로 강인하고 엄격하게 살고 싶었다. 나는 수풀을 잘라내고 잡초를 베어 내어 내 삶을 구석으로 몰고 간 다음, 가장 기본적인 것만으로 살기를 원했다. 그 결과 삶이 비천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 비천함의 진짜 의미를 확인하여 있는 그대로 세상에 알리고, 삶이 숭고한 것이라면 스스로 체험하여 다음 여행에서 삶에 대한 참다운 보고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I wanted to live deep and suck out all the marrow of life, to live so sturdily and Spartan-like as to put to rout all that was not life, to cut a broad swath and shave close, to drive life into a corner, and reduce it to its lowest terms, and, if it proved to be mean, why then to get the whole and genuine meanness of it, and publish its meanness to the world; or if it were sublime, to know it by experience, and be able to give a true account of it in my next excursion. (*Walden* 74)

소로위가 삶의 정수를 찾기 위해 숲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스마엘은 죽음과 삶의 경계인 바다에서 삶을 확인하는데, 그것은 바로 고래를 찾는 일로 요약된다. 이스마엘은 고래를 잡는 고래배를 타고 삶의 의미를 건져낼 준비를 한다. 이스마엘은 “숲에서 나무를 베던 자들이, 지금은 도끼를 집어던지고 고래잡살을 잡으려 한다”(Fellows who have felled forests, and now seek to drop the axe and snatch the whale-lance)(38)라고 덧붙인다. 죽음의 공간인 바다에서 이

스마엘은 고래를 찾음으로써 즉, 고래에 대해 폭넓게, 깊이 사유함으로써 삶을 되찾는다고 할 수 있다.

젠타일(John S. Gentile)은 『모비 딕』을 상징적 여정이나 탐구(quest)로 읽기 보다는 보다 더 영적인 의미를 지닌 이스마엘의 순례(pilgrimage)로 해석하고, 순례의 목적지인 성전(holy shrine)은 바로 흰 고래라고 주장한다(405). 그는 순례가 “분리, 이동, 편입”(separation, transition, and incorporation)(407)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데, 익숙한 곳으로부터의 단절이나 분리를 겪은 다음, 공간과 시간적 이동을 거친 순례자는 목적지를 방문하거나 목적을 이룬 후 다시 공동체로 편입된다는 것이다. 이스마엘에게 바다는 익숙했던 육지에서의 삶 대신에 그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삶의 무대이다. 또한 바다는 그에게 찾아야 할 수수께끼 또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던져주는데, 그 탐색의 대상이 에이헵에게는 복수의 대상인 모비 딕으로 상징되는 고래이다. 모비 딕을 찾는 일은 사실 이스마엘보다 에이헵의 삶에서 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명제이지만, 모비 딕을 복수의 대상이자 악의 화신으로만 설정하는 에이헵과는 달리 이스마엘은 고래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에이헵은 이미 한번의 ‘순례’에서 실패를 경험하였다. 즉 모비 딕과의 조우에서 한쪽 다리를 잃은 그는 선원들을 격려하여 다시 도전하지만 두 번째의 ‘순례’에서도 실패한다. 피쿼드 호의 선원들이 에이헵이 약속한 금화를 얻기 위해 고래를 찾는데 몰두하지만, 이스마엘에게 피쿼드 호의 항해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스마엘이 찾은 고래는 에이헵의 추격하는 복수의 대상이나 단순한 고래잡이의 대상이 아니다.

이스마엘이 일견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고독을 해소하기 위해 동료 를 찾아 배를 탔다고 할 수도 있지만, 피쿼드 호에서의 선상 생활은 무엇보다도 이스마엘을 고래의 의미 탐색으로 이끄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스마엘이 고래배를 타기 전에 만난 식인종 출신의 퀴퀘그와의 우호적 관계는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다. 고독한 이스마엘이 기꺼이 “마음의 친구”(Bosom Friend)(58)라고 부르는 퀴퀘그와의 우정은 동성애적 뉘앙스를 풍길 정도이다. “나와 퀴퀘그—서로 사랑하는 한 쌍도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마음

의 밀월을 보냈다”(in our heart’s honeymoon, lay I and Queequeg—a cosy, loving pair)(62)라고 했던 두 사람이 배에 탄 이후로는 그 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더 이상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 매티슨은 『아메리칸 르네상스』에서, 이스마엘이 퀴퀘그를 생각할 때, “그[이스마엘]는 그[이스마엘]의 고립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그[이스마엘]의 마음은 더 이상 사회와는 등지지 않았다”(he was freed from the burden of his isolation, his heart was no longer turned against society)(443)라고 평했다. 와터즈 역시 이스마엘이 퀴퀘그를 만남으로써 자신을 고독으로부터 구원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주장을 한다(1144). 카히르는 이스마엘이 물에서 퀴퀘그를 사귀 이후 서로가 “마음의 친구”(Bosom Friend)(58)가 되었으며 항해중일 때에도 역시 “절친한 친구”(bosom pal)로 우정이 이어졌다고 했다(88). 하지만 필자는 카히르의 견해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미국말이 서툰 퀴퀘그는 이스마엘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으며, 잘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102) 두 사람 사이에 언어를 통한 진정한 소통은 기대하기 어렵고, 피쿼드 호를 탄 다음부터 두 사람의 대화나 우정이 이어지는 장면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죽음을 예감한 퀴퀘그가 준비한 목재 판이 나중에 이스마엘을 살리는 부표로 기능하며, 카히르는 “이스마엘의 보호자”로서, “형제적 연대”의 축으로서의 퀴퀘그의 역할이 강조되는 순간이라고 보았다(89). 하지만 이런 소외의 상태를 잠시 잊거나 벗어나게 해주는 순간들은 “지속되지 않으며, 이스마엘이라는 존재의 일부인 심오한 고립을 제거해 주지 않는다”(they are not sustained, and they do not eliminate the profound isolation that is a part and parcel of Ishmael’s very being)(Cahir 90).

퀴퀘그와의 우정이 배를 탄 다음부터는 그리 부각되지 않는 것은 이스마엘에게 퀴퀘그는 피쿼드 호의 많은 선원들 중의 한 명으로만 간주되기 때문인 듯하다. 퀴퀘그와의 만남은 소설 초반에 일어나는 사건일 뿐이며, 피쿼드 호에서 이스마엘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퀴퀘그가 아닌 고래이다. 카히르는 이스마엘을 “자그마한 고래잡이들의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며, 협력해서 일하는 사교적인 영혼”(a gregarious soul, who enjoys telling stories, ruminating aloud, and working shoulder to shoulder

in a snug confederation of whalers)의 소유자임과 동시에 “외로운 영혼”(a lone soul)의 소유자(87)라고 평가한다. 즉, 이스마엘은 “고립과 사교성이 공존”(concurrent isolation and sociability)(88)하는 인물로서, 카히르가 보기에는 “터놓고 사교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고독한”(openly gregarious, yet inherently solitary)(16) 멜빌과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훨씬 더 사근 사근하면서 붙임성 있는 사람”(a far more sociable, affable fellow, Ishmael)(88)인 이스마엘이 피쿼드 호의 선원들과 어울리는 장면은 그리 많지 않다. 앞의 3장 1절에서 언급한 94장의 경뇌를 액체로 만들면서 동료 선원들의 손을 착각해서 잡는 ‘에로틱’한 장면을 제외하면, 이스마엘이 그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장면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멜빌이 아쿠쉬넷 호를 벗어나 식인종들과 어울려 살았던 것도 고래배에서의 생활이 바다로 추락할 위험을 무릅쓰면서 망대에 올라 고래를 찾아내고, 보트에 나눠 타고 고래를 잡은 후에 해체하는 힘든 노동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마엘은 퀴퀘그와의 유대관계를 지속하거나 동료 선원들과의 연대를 통해 외로움을 잊기보다는 고래라는 새로운 생각거리를 찾아내었다. 카히르는 이와 같은 이스마엘을 “사교적이면서도 고립된 사람”(Sociable Isolato)(88)의 전형이라고 부르는데, “붙임성 있게 사회에 참여하고, 우애적인 관계를 환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립된 사람”(one who takes part in society, often affably, an who welcomes fraternal relationships, yet who nevertheless remains profoundly isolated)(Cahir 91)이다. 카히르는 이런 사교적인 외톨이에게는 잠시나마 다른 이들과 의미 있는 교류를 할 때만 삶은 반짝이는 순간이 되며, 이런 의미 있는 참여의 순간이 “기운을 북돋워주고 안정되게 해주며 인간답게 만드는 효과”(a restorative, stabilizing, and humanizing effect)(93)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피쿼드 호에서 퀴퀘그나 다른 동료 선원들과의 순간적인 연대의 기쁨만으로 지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까지 1차 메일 받음

이스마엘은 피쿼드 호를 타기까지, 그 이후로도 배 위에서 끊임없이 고래에 대한 고민을 이어간다. 그에게 고래는 쉽게 정의되지 않는 존재이다. 그래서 모비 딕은 우선은 알 수 없는 미지의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죽음의 상징이 되고,

고독의 상징이 되며, 드디어는 삶의 수수께끼를 이해할 수 있는 직관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된다. 이미 모비 딕은 한 마리의 고래가 아니라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다. 복수의 대상으로만 모비 딕을 한정하는 에이헵과는 달리 이스마엘은 모비 딕에게서 온갖 의미를 찾아낸다. 소설 『모비 딕』에서 에이헵과 흰 고래의 대결을 그린 장면은 전체 총 135장 중에서 맨 마지막 세 장밖에 되지 않으며, ‘고래학 장’이라 불리는 나머지 부분은 고래와 고래잡이에 관한 백과사전이라 할 정도로 이스마엘의 고래에 대한 사색과 탐색을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 쓸데없어 보일 정도로 잡다한 이야기를 늘어놓지만, “본질적으로 미지의 것”(ultimately unknowable)으로 남아있는 그의 주제인 고래에 대해 이스마엘은 에둘러 말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에둘러 말하기(circumambulation)는 순례의 특징적 의례의 하나로 여겨진다(Gentile 409).

이스마엘의 항해를 젠타일의 주장처럼 순례로 볼 때, 첫 번째 과정인 익숙한 공간과의 분리, 즉 물을 떠나 낯선 바다라는 공간으로 진입하는 과정과 흰 고래를 찾아가는 두 번째 이동의 과정은 소설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다만 그가 공동체로 귀환하는 과정은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지는 않은데, 소설의 말미에서 이스마엘이 레이철 호에 의해 홀로 구조되는 장면이 공동체로의 재편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스마엘의 공동체로의 귀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의 하도록 하고, 우선 고래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이스마엘의 탐구를 살펴보겠다.

이스마엘이 고래에 매혹당하는 것은 그가 베드포드의 “물보라 여인숙”(The Spouter-Inn)(14)의 벽에 걸린 그림을 보았을 때부터 드러난다. 그림 속 미지의 물체는 북극에서, 또는 황야와 같은 육지에서 볼 수 없으며, 흑해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보면 볼수록 불가사의하고 숭고함이 느껴진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우리에게 일말의 힌트를 주는데, 지구 표면에서 남극대륙을 포함한 육지 부분, 북빙양, 인도양, 그리고 남빙양을 제외하면 태평양과 대서양이 남게 된다. “그림의 한복판에 떠돌고 있는 그 무엇”(something hovering in the centre of the picture)(14)은 바로 고래이다. 이스마엘은 “그 불가사의한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고야 말겠다”(to find out what that marvellous painting meant)(14)는 맹세를 하고 있다.

바다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이스마엘의 명상은 고래의 의미를 탐색하는데 바쳐진다. 고래의 의미가 세상과 동일시됨은 이미 이스마엘이 펠레그 선장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지만, 모비 딕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혹은 비유적으로 끝없는 탐색의 과정을 거쳐가야만 한다. 에이헵에게는 흰 고래가 절대 악을 상징하는 존재임을 완곡하게나마 설명하는 제41장 「모비 딕」(“Moby Dick”) 장이 끝나면, 다음 제42장 「고래의 흰색」(“The Whiteness of the Whale”)에서 이제 이스마엘 자신에게 고래가 어떤 의미인지를 탐색하기 시작한다. 이 탐색은 고래의 흰색에 주목하면서 흰색이 주는 공포에 대한 서사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스마엘은 에이헵의 주문에 따라 흰 고래를 찾아 나선 선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흰색으로 상징되는 공포와 죽음임을 뼈저리게 느낀다. 하지만 당장은 나타나지 않는 고래를 찾아가는 항해에서 이스마엘은 서서히 고래의 실체를 파악하게 된다. 노동육은 이스마엘이 “고래학 장들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상존하는 여러 어려움들과 인식론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고래의 실체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97)이라고 한다. 이스마엘의 탐색의 대상인 고래는 서서히 죽음의 상징에서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스마엘은 제103장 「고래 뼈의 치수」(“Measurement of the Whale’s Skeleton”)에서 태평양의 한 섬에 놓인 고래의 뼈대만을 보고 고래의 크기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가 잡다하게 모아 놓은 고래에 관한 지식은 실제 고래를 만나는 것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겁 많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이 평화로운 숲속에 누워 있는 양상한 해골만 보고 이 놀라운 고래를 정확히 파악하려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부질없는 짓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오로지 절박한 위험 속에서만, 분노에 불탄 고래의 꼬리가 만들어 내는 격렬한 소용돌이 속에서만, 끝없이 깊고 넓은 바다에서만 풍만하게 살찐 고래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생생하게 발견할 수 있다.

How vain and foolish, then, thought I, for timid untravelled man to try

to comprehend aright this wondrous whale, by merely poring over his dead attenuated skeleton, stretched in this peaceful wood. No. Only in the heart of quickest perils; only when within the eddyings of his angry flukes; only on the profound unbounded sea, can the fully invested whale be truly and livingly found out. (526)

죽음의 상징이었던 모비 딕은 이제 바다 한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다. 이스마엘은 흰 고래 역시 “무리를 떠나 혼자 다니는”(the unaccompanied, secluded)(209) 고독한 존재임을 인식한다. 선원들이 사냥감이 될 고래의 자취를 배의 돛대 위에 올라가 바다를 굽어보며 찾게 되는데, 이들이 발견하는 고래의 표식은 바로 “고독한 물줄기”(solitary jet)(271)이다. 고래가 내뿜는 물줄기는 바다 밑에서 수영하는 고래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 캄캄한 밤에 망망대해를 향해중인 배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물줄기가 “은빛 침묵”(a silvery silence)(270)처럼 보인다. 이 은빛은 고래의 물줄기가 달빛과 별빛을 받아 반사되는 것이다. 이스마엘은 야간에 향해하는 고래배의 돛대 꼭대기에 있는 선원에게는 별빛과 달빛을 받은 이 물줄기가 “유령의 물줄기”(the spirit-spout), “은빛 물줄기”(a silvery jet), 또는 “이 외로운 물줄기”(this solitary jet)(271)로 보인다고 표현했다. 유령과 같이 외로운 물줄기가 고래의 것이라면, 고래 역시 고독한 존재로 보인다. 멜빌은 “이 외로운 물줄기”를 통해 독자들을 고독의 근원이라 할 심해의 한복판으로 데려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물줄기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선원들은 또다시 밤중에 찾아온 물줄기를 보자마자, 이번에는 돛을 올려 움직이는 물줄기를 추적해 보지만 놓치고 만다.

며칠 뒤, 이 한밤중의 물줄기가 거의 잊혀졌을 때 또다시 그 조용한 시각에 물줄기가 보인다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도 모든 선원이 그 물줄기를 보았다. 하지만 물줄기를 따라잡으려고 돛을 올리자마자, 또다시 물줄기는 언제 나타났느냐는 듯이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밤마다 고래에게 농락당하고 나자 선원들도 나중에는 아무도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경탄만 할 뿐이었다. 때로는 밝은 달빛이나 별빛 아래에서 신비롭게 물을

뿔기도 하고, 때로는 온종일 또는 이틀이나 사흘 동안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그러다가 다시 우리 배 앞에 나타날 때마다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 고독한 물줄기는 우리를 영원히 유혹하는 듯했다.

This midnight-spout had almost grown a forgotten thing, when, some days after, lo! at the same silent hour, it was again announced: again it was descried by all; but upon making sail to overtake it, once more it disappeared as if it had never been. And so it served us night after night, till no one heeded it but to wonder at it. Mysteriously jetted into the clear moonlight, or starlight, as the case might be; disappearing again for one whole day, or two days, or three; and somehow seeming at every distinct repetition to be advancing still further and further in our van, this solitary jet seemed for ever alluring us on. (271)

“이 고독한 물줄기”는 영원히 선원들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지만, 선원들 또한 한밤중에 고독한 물줄기를 추격하는 일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 마치 누구도 고독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고, 오히려 고독을 찾아다닐 뿐이라는 것처럼, 선원들은 필사적으로 외로운 물줄기를 내뿜는 고래를 찾아간다.

피쿼드 호가 남대서양과 희망봉을 지난 이후 인도양을 거쳐 자바 섬과 수마트라 섬 사이의 순다 해협을 빠져나오자 엄청난 향유고래의 무리를 만나게 된다. 보트를 내리고 고래를 쫓아가던 선원들은 고래들 사이에서 갇혀버린다. 가장자리의 고래들이 보트 주변에서 날뛰며 선원들을 위협하지만, 고래 떼의 한복판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진다. “마치 산간의 급류에서 벗어나 계곡의 잔잔한 호수로 미끄러져 들어간 것처럼” (as if from some mountain torrent we had slid into a serene valley lake)(449) 수면은 갑자기 잔잔해지고, “모든 소요의 한복판에 숨어 있다고 하는 매혹의 고요함” (that enchanted calm which they say lurks at the heart of every commotion)(449)을 만나는 것이다. 더 놀랍게도 선원들은 투명한 바다 밑으로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들, 곧 어미가 되려는 고래들, 막 태어난 새끼 고래들이 평화롭게 유영하는 것을 목격

한다.

당황하고 겁에 질린 고래들에게 몇 겹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한가운데에 있는 이 불가사의한 고래들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자유롭게 태평스럽게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나 역시 폭풍이 휘몰아치는 대서양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그 중심에 있는 조용하고 잔잔한 해역에서 장난치며 즐겁게 놀고 있다. 영원히 사그라지지 않는 고뇌가 무거운 행성들처럼 내 주위를 돌고 있지만, 나는 깊은 밑바닥과 내륙의 깊은 오지에서 아직도 기쁨의 영원한 부드러움 속에 잠겨 있다.

And thus, though surrounded by circle upon circle of consternations and affrights, did these inscrutable creatures at the centre freely and fearlessly indulge in all peaceful concernments; yea serenely revelled in dalliance and delight. But even so, amid the tornadoed Atlantic of my being, do I myself still for ever centrally disport in mute calm; and while ponderous planets of unwaning woe revolve around me, deep down and deep inland there I still bathe me in eternal mildness of joy. (451)

지금까지 죽음의 상징이거나 포획의 대상으로 여겨진 고래의 전혀 다른 모습에 선원들은 당황한다. 보트로 다가온 천진난만한 작은 고래를 보자 퀴퀘그는 고래의 이마를 톡톡 두드리고 스타벅은 고래의 등을 창으로 긁어주는데, 작살을 들고 있던 조금 전의 호전적인 감정은 사라져 버린다. 심지어 퀴퀘그조차도 막 태어나 아직 어미에게 젖줄로 연결되어 있는 새끼 고래를 보고 “작살에 맞았다! 누가 밧줄을 던졌지! 누가 쏘았지?” (him fast! — Who line him! Who struck?)(451)라고 하며 작살잡이로서의 본분도 잊고 고래의 안위를 걱정할 정도이다. 이스마엘 또한 ‘대서양의 폭풍’의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영클어지고 고뇌로 가득하던 그의 마음이 고래를 보면서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무리를 떠나 혼자 다니는” 고래 대신에 무리를 이루고 있는 사나운 고래들의 한 가운데에서 생의 신비를 만나게 되는 이 장면은 바다에 빠진 뱀의 영혼

이 수면 아래에서 보았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그의 “생기 없는” 눈에 들어온 “왜곡되지 않은 원초적 세계의 낯선 형상들”(strange shapes of the unwarped primal world)(483)은 비록 ‘지혜’라는 인어왕자가 항상 젊은 영원의 세계라는 보물을 보여줄지라도 그것은 추상의 세계일 뿐, 핏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나 깨달음을 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구조된 핏이 실성하도록 만들 뿐이다. 반면에 이스마엘이 투명한 바다 수면 아래에서 목격하는 크고 작은 고래들은 그에게 일시적이거나 ‘기쁨’을 선사하고, 고래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바꾸어놓는데 기여한다. 비록 고래 떼 한가운데의 고래 가족들이 ‘절대 고독’을 감추고 있거나, 이스마엘이 고독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스마엘은 고래의 고독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된다.

### 5.3 불멸의 고독

소설은 피쿼드 호의 선원들이 결국 모비 딕을 만나 사투를 벌인 끝에 이스마엘을 제외한 모두가 배와 함께 물에 가라앉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퀴퀘그의 “관으로 만든 구명부표”(coffin life-buoy)(663)에 의지하여 바다를 떠돌다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헤매던 넌터킷 선적의 또 다른 고래베레이철 호에 의하여 구조된다(663). 이스마엘이 피쿼드 호와 함께 한 여정은 마무리되지만, 그는 구조되었고 또 다시 물에 오르게 될 것이다.

세계의 바다를 항해하던 이스마엘은 마침내 “모노미스”(monomyth)<sup>22)</sup>의 주인공이 된다. 그동안 상선을 타고 대서양만 항해하던 이스마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고래배를 타게 되었다. 피쿼드 호는 남대서양과 인도양을 거쳐 순다 해협과 말라카 해협을 지나고, 동남아시아 바다와 남중국해를 뒤로 하고 태평양 입구에 들어선다. 모항을 출항한 이후 기항을 거의 하지 않는 고래배로서, 수년간의 장기 항해는 고래배 선상과 고래잡이 해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그를 괴롭혀왔던 고독과 대면하는 시간이기도

22) 전형적인 영웅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거치는 여정. 또는 초자연적인 곳으로 모험을 떠나 그곳에서 엄청난 힘을 얻고, 살던 곳으로 돌아와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

하다. 즉 그의 항해는 육지에서의 친숙한 생활을 뒤로 하는 통과 의례로서 (Gentile 407), 마침내 이스마엘은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난다(Gentile 412). 그는 대양의 “소용돌이”(vortex)(661) 속에 빨려들지만 “관으로 만든 구멍부표”(663)를 타고 다시 태어난다. 되돌아보면 뉴욕에서의 그의 “이슬비 내리는 11월”(drizzly November)(131) 그 자체가 바다 소용돌이라는 공포와 조우함으로써 그가 그동안 품어온 삶의 회의를 제거해 주었다.

소설의 마지막 장인 「에필로그」(“Epilogue”)의 제사(epigraph)는 구약의 읍기를 인용하고 있다. 야훼가 욥에게 시험으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자 여러 일꾼들이 욥에게 와서 제각각 “저만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러 왔습니다”(욥기 1:15; 16; 17; 19)라고 하며 자신이 속했던 일꾼의 무리에게 닥쳤던 재난을 고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유일한 생존자가 된 이유도 모비 딕과의 사투와 피쿼드 호의 침몰을 증언하는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죽음의 항해 끝에 홀로 귀환한 이스마엘은 마치 코울리지(Samuel Taylor Coleridge, 1772-1834)의 “노수부”(the ancient mariner)처럼 난터킷의 항구나 물보라 여인숙 앞에서 사람들을 붙들여 세우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지도 모른다.

다시 물으로 돌아온 이스마엘은 어떻게 달라지며,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그는 흰 고래나 에이헵의 이야기만을 들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스마엘은 레이철 호가 찾아낸 것이 “또 다른 고아”(another orphan)(663)였다는 말로 소설을 마무리한다. 소설의 서두에서도 고독하고 소외당한 존재였던 이스마엘이 바다와 죽음의 공포에서 구조되었을 때도 자신을 ‘고아’라고 부르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고독한 외톨이들(isolatoes)인 선원들이 피쿼드 호에서 잠시 동안이나마 공동체 생활을 통해 기쁨을 누렸던 경험을 뒤로 하고 다시 혼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해석은 이스마엘이 진정한 고독의 의미를 깨달은 것과 관련이 있다. 고래 떼 한가운데에서 잠시 기쁨을 누린 직후, 이스마엘은 그의 마음속에 숨어 있던 의심의 안개를 뚫고 나온 직관이 천상의 빛으로 의심의 안개를 태워버린다는 요지의 말을 이어간다(435).

내 마음속에 숨어 있는 희미한 의심의 짙은 안개를 뚫고 신성한 직관이 이따금 분출하여, 내 마음속의 그 짙은 안개를 천상의 찬란한 빛으로 태워버릴 때가 있다. 나는 이것을 신에게 감사드린다. 모든 사람이 의심을 품고 많은 사람이 부정하지만,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직관을 더불어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지상의 온갖 것에 대한 의심, 천상의 무언가에 대한 직관,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은 신자도 불신자도 되지 않고, 양쪽을 공평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

And so, through all the thick mists of the dim doubts in my mind, divine intuitions now and then shoot, enkindling my fog with a heavenly ray. And for this I thank God; for all have doubts; many deny; but doubts or denials, few along with them, have intuitions. Doubts of all things earthly, and intuitions of some things heavenly; this combination makes neither believer nor infidel, but makes a man who regards them both with equal eye. (435)

양쪽을 공평한 눈으로 바라보려면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한 의심”과 “천상의 무언가에 대한 직관”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스마엘의 주장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심의 안개’와 ‘신성한 직관’은 모두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다. ‘신성한 직관’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의 마음에 이미 내재하고 있다. 그가 맨해튼의 물가에서부터 피쿼드 호에서의 항해에까지 집요하게 이어왔던 명상은 어찌 보면 ‘의심의 안개’와 같다. 고독을 두려워하거나 물리치려 할 필요가 없다. 고독은 오히려 명상을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직관을 갖추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들끓는 고래의 무리 한복판에서 맛보는 고요함과 기쁨은 공동체로부터 진정으로 떨어져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직관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그의 두려움이나 고독함을 태워 없애버린다.

소로우는 자신 있게 주장한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본인 의지와 무관하지만 의미 있는 생을 살다가 죽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소로우는 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숲속에서의 고독한 생활을 선택하고 결국 실천적 삶

을 살았다. 소로우의 삶과 달리 펄은 운명을 개척할 의지가 없이 물 위에 떠서 물결을 따라 떠다니는 나뭇잎 같은 생을 마감한다. 펄처럼 바다 위에 버려져서 고독을 맞볼 수도 있지만, 물에 떠다니는 나뭇잎의 신세를 벗어나 객관적으로 고독의 실체를 내려다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스마엘은 펄과 마찬가지로 표류하면서 고독을 경험하지만,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구조되었다. 구조되는 순간 자신을 ‘고아’라고 말하는 것은 그 상태가 자신에게 유한한 무한을 허용하는 영혼을 대면하는 순간이고, 소로우의 말처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이스마엘이 경험한 고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선원이 되기 전 물에서의 고독은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배신감에서 기인한 ‘외로움’ 이었다. 하지만 고래배 선원이 되면서 이스마엘은 자아 성찰과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운명적 고독을 이해하기 위한 순례를 떠난다. 퀴퀘그나 동료 선원들과의 우정과 연대를 통해 과거의 ‘외로움’ 과 소외를 벗어나기도 하지만, 고래의 의미 탐색은 순간적인 사회적 연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본질적 조건인 ‘홀로인 상태’ 즉 절대적 의미의 고독까지 아우르는 순례의 여정이 된다. 그리고 피쿼드 호의 침몰과는 달리 구조되어 사회로 돌아오게 될 이스마엘은 고독을 긍정적으로 보는 혜안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스마엘은 ‘외로움’ 과 ‘홀로임’ 이라는 고독의 두 가지 차원을 모두 이해한 사람이 된다.

## 6. 결 론

19세기 중반의 미국 사회는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 체제가 자리 잡는 가운데, 공동체와 대비되는 개인의 문제가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건국 초부터 노예제는 합법이었고, 신생 자본주의의 발달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개인과 ‘고독’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동시에 미국문학에서도 집중적으로 개인의 소외를 보여주거나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멜빌의 작품은 에머슨의 초절주의와 소로우, 그리고 호손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동체에서 바깥으로 내몰리는 인물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소외와 고독의 문제를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멜빌의 주요 작품 『모비 딕』과 「필경사 바틀비」의 등장인물이 겪는 소외의 과정과 고독을 살펴보았다. 「필경사 바틀비」는 영리만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일어나는 물질 숭배, 소외되는 인간, 인간성 상실을 고발하는 작품이라면 『모비 딕』은 기존의 질서가 자리하고 있는 육지를 떠나 새롭게 구성되는 “떠다니는 공동체”인 고래배를 주요 무대로 삼는다. 이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제각각 외톨이(isolato)라는 숙명을 지니고 있음에도 한데 모여 때로는 공동 작업을 통해 연대의식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철저한 경제적 논리에 의해 구성원들이 조직되고 배제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미국 사회의 구성을 보여주듯이 피쿼드 호에서 선장과 상급자는 미국 출신의 백인이고, 이민족 출신의 하급 선원들이 육체노동을 맡게 된다.

먼저 제3장에서 흑인 소년 핍은 선원들이 선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는 탬버린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같이 어울린다. 하지만 필요한 노동력과 기술을 제공할 수 없는 핍은 추격중인 고래보다 못한 존재로서 물에 빠져도 동료들로부터 외면당한다. 이런 점에서 핍은 이율배반적 존재이다. 실성한 핍은 자신만

의 세계에 갇히게 되고 선원들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진다. 사람이 실성한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핏의 실성은 신의 선택이자 선물로 묘사된다. 자살을 하거나 지혜를 구하는 일은 노력여하에 달려 있지만, 핏과 같이 실성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으며 타인에게 해줄 수도 없다. 이스마엘은 핏이 물에 빠지는 사건이 배의 운명을 예언했다고 본다. 가장 보잘 것 없는 핏이 하늘의 선택을 받아 실성해버리고, 나머지 선원들은 예정된 운명의 길을 걸어가지만, 아무도 실성한 핏이 전하는 예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479). 홀로 구조된 이스마엘만이 사건의 의미를 나중에 해석하게 될 따름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 멜빌은 바틀비의 고독을 통해 급변하는 19세기 미국 사회와 자본주의를 보여주면서 화자 겸 변호사의 경제 논리와 이익 추구만을 내세우는 월가의 무차별적인 인권침해를 고발한다. 폭력이나 법을 지양하고 비폭력 저항을 추구하는 바틀비는 더 이상 미국식 자본주의의 무자비성을 좌시하지 않는다. 바틀비가 선택한 고독은 궁극적으로 그를 고립과 죽음으로 이끈다. 영혼이 부재하는 텅 빈 물통 같은 월가 건물에서 쫓겨난 바틀비는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거부하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침묵의 메아리를 관철시키려고 한다. 바틀비 자신은 미국식 자본주의와 경제논리의 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지만 자신의 죽음이 수반된 고독으로 이를 비판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모비 딕』의 화자 이스마엘은 우여곡절이 많은 삶과 운명의 역할에 대하여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인물이다. 논문에서 다른 두 인물 핏과 바틀비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부조리한 차별과 궁핍을 체험하면서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다른 두 인물이 공동체를 떠나거나 공동체에 귀속되지 못하는 실패를 메꾸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 성서 속의 이름처럼 살아남음으로써 고독의 의미를 새로 쓸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흑인 소년 선원 핏, 필경사 바틀비, 이스마엘은 각각 고독한 사람들로 각자 특유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들 각자는 어느 날부터 고독한 삶을 시작하거나, 고독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거나, 또는 고독한 삶 속에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다. 이들의 고독한 삶은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 핏은 자신만의 세

계에 간혀버리고, 바틀비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기를 원하고, 이스마엘은 갇힌 세계를 벗어나 새로운 깨달음을 찾는 성향을 갖고 있다.

19세기 미국에서 멜빌을 비롯하여 에머슨, 호손, 소로우 같은 작가들이 모두 공동체에서 벗어난 개인주의와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때로는 그런 고독의 위험성을 그렸다. 멜빌의 인물들은 사회에서 소외를 경험하면서 이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찾아나서는 과정을 보여준다. 핼은 혼자만의 고독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실성해버린다. 바틀비는 고독한 삶을 추구하지만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스스로 고아라고 선언한 이스마엘은 고독의 의미를 찾아나선 순례자의 여정에서 불멸의 고독을 얻으며 고독과 대면하기에 이른다.

논문의 서두에서 필자는 19세기 미국문학에서 개인과 고독이라는 주제를 동시대 작가들과 연관시켜 멜빌의 작품 중에서 인물을 분석해 보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꽃핀 초절주의는 개인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로서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멜빌은 거의 모든 작품에서 사회와의 관계에서 갈등하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개인이 겪는 소외와 고독의 문제를 다룬 작가이다. 특히 당대 미국이 겪고 있던 경제 위기는 고래배를 타는 이색적인 경험으로 멜빌을 이끌었고, 미국이라는 공간을 넘어서서 미국인을 들여다보는 시각을 부여하였다. 논문에서 주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모비 딕』의 핼과 이스마엘, 「결정사 바틀비」의 바틀비는 자의에서건 타의에서건 그들을 둘러싼 사회와 불화하는 인물들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겪는 고독이라는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은 지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핼이 공동체와의 허약한 결속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성해버리거나 물질주의가 팽배한 월가의 방식을 거부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독을 선택하는 바틀비는 모두 개인의 불행이라는 결과를 만나게 된다. 필자는 이스마엘이 경제적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고래배를 타게 되지만 끝까지 온전히 살아남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인물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고독을 경험하고 고독의 의미를 찾아 헤맨 이스마엘이 결국 고독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삶의 조건으로 주어져 있음을 깨달음으로써 고독이라는 단어가 지닌 부정적 함의를 극복한다고 보았다.

노벨 문학상(1976) 수상자인 솔 벨로(Soul Bellow, 1915-2005)는 멜빌의 영향을 받아 ‘고독’을 주제로 쓴 20세기 미국 작가라 할 수 있다. 유태계인 그는 모든 작품에서 인간소외를 다루었다. 예를 들면 『허공에 매달린 사나이』(*Dangling Man*, 1944)와 『오늘을 잡아라』(*Seize the Day*, 1956)에서 다룬 소수민족의 소외감과 비애, 분열, 전통과의 단절, 고립, 비인간화된 제도, 문명에 대한 제도 등과 수반되는 고독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침울한 생활상, 혼란과 무질서에 의한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노출되는 고독을 표현했다(한문자 1-7). 삭막하고 고독한 사회에서 도덕적 개념을 작품 속에 구현시키려고 한 그의 노력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여러 영미작가들의 작품의 주요주제가 되고 있기에 멜빌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한정된 미국문학의 테두리 안에서 지나온 사회를 돌아보는데 만족하지 않는다. 아울러 금융자본주의와 개인주의 혹은 개인을 대체하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극단으로 팽배한 현재의 상황에서 멜빌의 인물들이 추구한 고독을 돌아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독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는 멜빌의 인물들이 현대의 소외된 개인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오늘날의 왕따, 독거노인, 노숙자와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나 자살, 고독사, 혼밥족, 혼술족 등과 같이 고독과 관련된 사회를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거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독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최소한의 평안과 위안을 생각해보는 일은 문학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 Works Cited

- 김낙현·홍옥숙, 「허만 멜빌의 『엔칸타다스』에 나타난 노예제 비판」, 『해당도시문화교섭학』, vol. 13, 2015, pp. 247-74.
- 노동욱. 「이스마엘의 진리탐색: *Moby-Dick*의 고래학장들을 중심으로」. 『영어권문화연구』 5.2 (2012): 85-111.
- 윌멘, 리하르트 반. 최윤영 역. 『개인의 발견: 어떻게 개인을 찾아가는가 1500~1800』 2005 서울: 현실문화연구.
- 멜빌, 허만. 『모비 딕』. 김석희 역. 파주: 작가정신, 2014.
- \_\_\_\_\_. 『세계문학 단편선 17』. 김훈 역. 서울: 현대문학, 2015.
- 신현욱. 「너새니얼 호손」. 『영미문학의 길잡이 2: 미국문학과 비평이론』. 영미문학연구회 편. 창비, 2007. 83-98.
- 한문자. 「Saul Bellow 작품 속의 “진실한 영혼” 과 “거짓된 영혼” - *Seize the Day, Dangling Man, and Herzog* 중심으로 -」. 석사논문. 인하대학교 2001.
- Agamben, Giorgio. “Bartleby, or On Contingency.” *Potentialities: Collected Essays in Philosophy*. Ed. and Trans. Daniel Heller-Roazen, California: Stanford UP, 1999. pp. 243-74.
- Albrecht, Robert C. “The Thematic Unity of Melville’s *The Encantadas*.” *Texas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vol. 14, no. 3, 1972, pp. 463-77.
- Anwaruddin, Sardar M. “Emerson’s Passion for Indian Thought.” *International Journal of Literature and Arts*, vol. 1, no. 1, 2013, pp. 1-6.

- Atkinson, Brooks. "Introduction." *The Complete Essays and Other Writings of Ralph Waldo Emerson*, by Ralph Waldo Emerson. New York: Random House, 1950, pp. xi-xxv.
- Augst, Thomas. "Melville, at sea in the city."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e Literature of New York*. vol. 10, no. 4, 2010, pp. 58-75.
- Barrenechea, Antonio. "Conquistadors, Monsters, and Maps: *Moby-Dick* in a New World Context." *Comparative American Studies*, vol. 7 no. 1. March, 2009, pp. 18-33.
- Bezanson, Walter E. "*Moby-Dick*: Document, Drama, Dream." *A Companion to Melville Studies*, Ed. John Bryant, Westport, CT: Greenwood, 1986, pp. 169-210.
- Billy, Ted. *A Companion to American Gothic*. Ed. Crow, Charles L., Oxford: Wiley Blackwell 2014.
- Bloom, Harold. *The American Renaissance*, New York: Chelsea House, 2004.
- Blumenthal, Rachel. "Melville's *The Encantadas*," *The Explicator*, vol. 64, no. 4, 2006, pp. 222-23.
- Boren, Mark Edelman. "What's Eating Ahab? The Logic of Ingestion and the Performance of Meaning in *Moby-Dick*." *Style*, vol. 34, no. 1, 2000, pp. 1-24.
- Cahir, Linda Costanzo. *Solitude and Society in the Works of Herman Melville and Edith Wharton*. CT: Greenwood Press, 1999.
- Campbell, Joseph.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Princeton: Princeton UP, 2004.
- Coxe, Louis. "Melville's *The Encantadas*." *The New Republic Reconsideration* May 12, 1973, pp. 32-35.

- Deleuze, Gilles. *Essays Critical and Clinical*. Trans. Daniel. W. Smith & Michael. A. Greco. London: Minnesota UP, 1997.
- Deleuze, Gilles., Fe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 Brian Massumi. London: Minnesota UP, 2005.
- Deneen, Patrick J. "Transcendentalism, Ancient and Modern: Brownson versus Emerson." *Perspectives on Political Science*, vol. 37, no. 1, 2008, pp. 8-16.
- Donne, John.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Ed. Abrams, M. H. Seventh Edition, vol. 1, 2000.
- Donoghue, Denis. "Moby-Dick After September 11th." *Law & Literature*, vol. 15, no. 2, 2003, pp. 161-88.
- Emerson, Ralph Waldo. "The American Scholar." *The Complete Essays and Other Writings of Ralph Waldo Emerson*. New York: Random House, 1950, pp. 43-63.
- \_\_\_\_\_. "Nature." *The Complete Essays and Other Writings of Ralph Waldo Emerson*. New York: Random House, 1950, pp. 1-42.
- \_\_\_\_\_. "Self-Reliance." *The Complete Essays and Other Writings of Ralph Waldo Emerson*. New York: Random House, 1950, pp. 145-69.
- \_\_\_\_\_. "The Transcendentalist." *The Complete Essays and Other Writings of Ralph Waldo Emerson*. New York: Random House, 1950, pp. 85-103.
- Fiedler, Leslile A. *Love and Death in the American Novel*. New York: Criterion Books, 1960.
- Flemming, Gregory C. "By Mutual Opposition to Nothing." *Angelaki*, vol. 20, no. 4, 2015, pp. 157-77.
- Fontana-Giusti, Gordana. "Walling and the City: the Effects of Walls and Walling within the City Space." *The Journal of Architecture*. vol. 16, no. 3,

2011, pp. 309–45.

Foster, Charles H. “Something in Emblems: A Reinterpretation of *Moby-Dick*.” *New England Quarterly*, vol. 34, no. 1, 1961, pp. 3–35.

Gaboury, Jacob. “Becoming NULL: Queer Relations in the Excluded Middle.” *Women & Performance: a Journal of Feminist Theory*, vol. 28, no. 2, 2018, pp. 143–58.

Gentile, John S. “The Pilgrim Soul: Herman Melville’s *Moby-Dick* as Pilgrimage.” *Text and Performance Quarterly*, vol. 29, no. 4, 2009, pp. 403–14.

Gesler, Wil. “Using Herman Melville’s *Moby-Dick* to Explore Geographic Themes.” *Journal of Geography*, vol. 103, no. 1, 2004, pp. 28–37.

Goering, Wynn M. “To Obey, Rebelling: The Quaker Dilemma in *Moby-Dick*.” *New England Quarterly*, vol. 54, no. 4, 1981, pp. 519–38.

Hardack, Richard. “From Whaling to Armaments to Food: Melville’s, Pynchon’s, and Wedde’s Economies of the Pacific.” *Critique: Studies in Contemporary Fiction*, vol. 54, no. 2, 2013, pp. 161–80.

Hirsch, David. H. “The Dilemma of the Liberal Intellectual: Melville’s Ishmael.” *Texas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vol. 5, no. 2, 1963, pp. 169–88.

James, C. L. R. *Mariners, Renegades & Castaways: The Story of Herman Melville and the World We Live In*. Dartmouth College, 2001.

Kateb, George. *Emerson and Self-Reliance*. London: SAGE, 1995.

Krell, David Farrell. “Emerson—Nietzsche’s Voluptuary?” *Comparative and Continental Philosophy*, vol. 7, no. 1, 2015, pp. 8–17.

Krips, Henry. “Politics of Overconformity: Bartleby Meets Žižek.”

- Communication and Critical/Cultural Studies*, vol. 9, no. 3, 2012, pp. 307-16.
- Long, James Weldon. "Plunging into the Atlantic: The oceanic order of Herman Melville's *Moby-Dick*." *Atlantic Studies*, vol. 8, no. 1, 2011. pp. 69-91.
- Lorenz, Johnny. "Escape from the dead letter office." *Interventions*, vol. 7, no. 1, 2005, pp. 72-83.
- Marx, Karl. *Economic-Philosophic Manuscripts of 1844. Marx & Engels Collected Works*. Vol. 3, Lawrence & Wishart Electric Book. 2010, pp. 229-346.  
[http://www.hekmatist.com/Marx%20Engles/Marx%20%20Engels%20Collected%20Works%20Volume%203\\_%20Ka%20-%20Karl%20Marx.pdf](http://www.hekmatist.com/Marx%20Engles/Marx%20%20Engels%20Collected%20Works%20Volume%203_%20Ka%20-%20Karl%20Marx.pdf). Accessed 12 May 2019.
- Massie, Virginia. *Solitary blessings: solitude in the fiction of Hawthorne, Melville, and Kate Chopin*. Diss, Louisiana State University, 2005.
- Matthiessen, F. O. *American Renaissance: Art and Expression in the Age of Emerson and Whitman*. New York: Oxford UP, 1941.
- Maxwell, Ian. "12 Hours before the Mast." *Performance Research*, vol. 21, no. 2, 2016, pp. 58-62.
- Maynard, W. Barksdale. "Thoreau's House at Walden." *The Art Bulletin*, vol. 81, no. 2, 1999, pp. 303-25.
- Melville, Herman. "Bartleby, the Scrivener: A Story of Wall Street." *Billy Budd, Sailor and Other Stories*, Ed. Harrison Hayford et al., New York: Northwestern UP and Newberry Library, 1986, pp. 3-46.
- \_\_\_\_\_. *Journal of a Visit to Europe and the Levant October 11, 1856-May 6, 1857*. Ed. Howard C. Horsford: Princeton UP, 1955.
- \_\_\_\_\_. *Moby-Dick*. New York: Penguin, 2012.

- \_\_\_\_\_. *Moby-Dick: An Authoritative Text Reviews and Letters by Melville Analogues and Sources Criticism*. Eds. Harrison Hayford and Hershel Parker. Norton, 1967. <https://archive.org/stream/mobydickauthorit00melv#page/n5>. Accessed 2 December 2018.
- \_\_\_\_\_. “The Encantadas or Enchanted Isles.” *Billy Budd, Sailor and Other Stories*. Penguin, 1986. pp. 67–137.
- Morse, David. *American Romanticism: Vol. 1. From Cooper to Hawthorne—Excessive America*. Barnes & Noble, 1987.
- Osherenko, Gail. “Environmental Justice and the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Moby-Dick* Revisited.” *Journal of International Wildlife Law & Policy*, vol. 8, no. 2–3, 2005, pp. 221–39.
- Pardes, Ilana. “Remapping Jonah’s Voyage: Melville’s *Moby-Dick* and Kitto’s *Cyclopedia of Biblical Literature*.” *Comparative Literature*, vol. 57, no. 2, 2005, pp. 135–57.
- Parker, Hershel. “American Literature 1820–1865.” *The Norton Anthology of American Literature*. Sixth Edition. Ed. Nina Baym. Norton. 2003.
- \_\_\_\_\_. *Herman Melville: A Biography, vol. 2, 1851–1891*. Baltimore: Johns Hopkins UP, 2002.
- Pusch, Jeffrey. “The Thaumatic Experience: Drama and Audience in *Moby-Dick*.” *Nineteenth-Century Contexts*, vol. 37, no. 3, 2015, pp. 249–65.
- Roper, William. *The Life of Sir Thomas More*. First Rate Publishers, 2014.
- Ruvolo, Giuseppe. “The meaning of Work and its Context: A Reinterpretation of ‘Bartleby, the Scrivener’ by Herman Melville.” *World Futures*, vol. 73, no. 4–5, 2017, pp. 224–47.
- Saito, Naoko. “American philosophy and its Eastern strains: Crisis, resilience, and self-transcendence.”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vol. 48, no.

- 10, 2016, pp. 1065-76.
- Sattelmeyer Robert. "Thoreau and Melville's *Typee*." *American Literature*, vol. 52, no. 3, 1980, pp. 462-68.
- Slotkin, Richard. *Regeneration Through Violence: The Mythology of the American Frontier, 1600-1860*. Norman: Oklahoma UP, 2000.
- "Solitude."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Vol. X. Oxford: Oxford UP, 1961. p. 404.
- Stempel, Daniel., Bruce M. Stillians. "Bartleby the Scrivener: A Parable of Pessimism." *Nineteenth-Century Fiction*. vol. 27, no. 3, 1972, pp. 268-82.
- The Living Gita: The Complete Bhagavad Gita*. Trans. Swami Satchidananda. Virginia: Integral Yoga, 2010.
- Titon, Jeff Todd. "Thoreau's Ear." *Sound Studies*, vol. 1, no. 1, 2015, pp. 144-54.
- Thoreau, Henry David. *Walden*. New York: Signet Classics, 2012.
- Wan, Marco. "The Unwritten Law of Files." *Law & Literature*, vol. 22, no. 1, 2010, pp. 199-211.
- Watters, R. E. "Melville's Isolatoes." *MLA*. vol. 60, no. 4, 1945, pp. 1138-1148.
- Weir Jr., Edgar A. *The Whiter Lotus: Asian Religions and Reform Movements in America, 1836-1933*. Diss, Nevada University, 2011.
- Žižek, Slavoj. "Notes towards a politics of Bartleby The Ignorance of Chicken." *Comparative American Studies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4, no. 4, 2006, pp. 375-94.